

# 행 사 일 정

◆ 등 록 (10:30)

◆ 개 회 식 (11:00~11:20)

▷ 사 회 : 이 훈(본원 문화재 연구부장)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이 해 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 축 사 : 김 현 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장)
- 환 영 사 : 함 기 선 (한서대학교 총장)

◆ 기조발표(11:20 ~ 12:00)

· 지역박물관의 건립현황과 방향

발표 : 석대권(대전보건대 교수)

◆ 중 식(12:00 ~ 13:00)

◆ 주제발표(13:00 ~ 14:40)

▷ 사 회 : 임선빈(본원 충청학 연구부장)

· 제 1 주제 : 지역 공립박물관의 건립현황과 과제

발표 : 주인택(광주시립박물관 학예실장)

토론 : 강진갑(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이우권(인덕대 건축과 교수)

· 제 2 주제 : 지역 주제박물관의 건립현황과 과제

발표 : 최종호(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겸임교수)

토론 : 한동민(중앙대 사학과 강사), 안덕임(한서대 박물관장)

◆ 휴 식(14:40 ~ 15:00)

◆ 주제발표(15:00 ~ 15:50)

· 제 3 주제 : 충남 지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발표 : 오석민(본원 연구위원)

토론 : 전경목(전북대 박물관), 이상엽(태안패총박물관)

◆ 정리 및 폐회(15:50 ~ 16:00)

# 목 차

- ◆ 기조발표 :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 3  
석 대 권(대전보건대 교수)
  
- ◆ 제1주제 : 지역 종합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 29  
-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  
주 인 택(광주시립박물관 학예실장)
  
- ◆ 제2주제 : 지역 주제박물관의 건립현황과 과제 ..... 49  
최 종 호(명지대 겸임교수)
  
- ◆ 제3주제 : 충남 지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 73  
오 석 민(본원 책임연구원)
  
- ◆ 부 록 : 박물관 등록 현황 ..... 89

# 개 회 사

우선 연말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제5회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 연구소와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한서대학교 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한층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공동주최를 흔쾌히 수락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준 한서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역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최근 문화의 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박물관을 갖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문화를 통해 지역의 차별적인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박물관이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립되거나 운영되는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시고 “지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박물관의 바람직한 건립 및 운영방향이 검토되고, 지역박물관의 특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님, 김현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과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 12. 6.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이 해 준

##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석 대 권(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교수)

### <목 차>

- I. 서 언
- II.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문제
- III. 박물관 조직과 운영
- IV. 지역박물관 건립과 운영의 과제

### I. 서 언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육, 전시를 한다고 ICOM(국제박물관협회)는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의 전통적인 기능은 조사·연구·수집·보존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홍보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이 전시 개념의 위주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사회교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

또, 21세기의 박물관은 지역공동체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박물관 전문직원의 분업과 전문화, 박물관 종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동작업,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박물관 홍보활동,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활동과 사회교육 실시,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조사·기록·연구에 첨단 기자재의 사용, 박물관 자료의 해석에 시청각 기자재의 적극적인 활용, 충분한 휴게공간과 학습·교육·위락시설 및 공간의 확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영리추구를 위한 박물관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있다(崔鍾鎬, 1996. 24쪽). 이와 같이 현대박물관은 이른바 3세대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지역박물관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지방자치 시대와 함께 적지 않은 지역박물관(향토문화관, 자료관 등 포함)이 각시·군에서 건립하거나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박물관은 해당지역의 지역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지역주민들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해당지역의 지역문화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줄 수 있어야 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등 다

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박물관이나 자료관들은 운영의 주체가 가지는 ① 지역사나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구도의 불분명함과, 이를 운영할 ② 전문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각종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많은 경우는 ‘예산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과 당위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것이 지역민에게 미칠 중요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모습들은 우선 ① “대지마련-건축설계-건축”의 단계가 이루어진 뒤에 전시공간의 구성을 생각하는 모습, ② 건축 후에 별이는 전시품의 수집작업, ③ 의식없는 운영책임자의 임명, ④ 학예연구사가 아닌 단순 기능직의 배치, ⑤ 수장고형태의 ‘죽은 박물관화’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李海濬, 1996, 10쪽).

이러한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8월 31일 현재 문화관광부 등록된 박물관은 252관이나(표1 참조),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박물관을 제외하고 운영이 열악한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는 모든 박물관을 문제 삼아 거론하기 보다 광역자치 단체나 기초단체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지역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지역박물관의 건립과 문제

### 1. ‘지역’을 알 수 있는 지역박물관의 건립

우리나라의 공립박물관 건립의 역사는 56년 전 인천시립박물관을 꼽고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향토관의 소장 유물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족박물관에서 대여한 유물들을 중심으로 1946년 4월 1일 개관하므로, 해방 후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되었다. 그 후 박물관 거물이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제물포구락부(현 인천문화원)에서 1954년 4월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1990년 현재의 박물관 자리(인천시 영수구 옥련동)로 대지 2,950평, 연건평 815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선사-고려실, 조선-개화실, 서화-전적실 등을 갖추고 이전개관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 박물관은 1963년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등 조사연구활동도 하였고, 1993년 한국문화학교에서 지역문화학교로 지정된 후 청소년들과 교사를 상대로 토요박물관교실 등과 1999년도부터 박물관대학을 운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박물관 소식, 1999(봄호),12-13). 인천시립박물관의 간단한 역사를 통하여 지역박물관이 단순 전시활동 단계→조사·연구 단계→사회교육 담당 등으로 박물관의 기능이 차츰 다양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표 1.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1. 등록현황 : 252관

- 박물관 : 192관 (공립 : 33 / 사립 : 107 / 대학 : 52)
- 미술관 : 60관 (공립 : 7 / 사립 : 52 / 대학 : 1)

2. 지역별 현황

(2002. 8. 31 현재)

| 구분<br>시·도 | 박 물 관 |     |    |     | 미 술 관 |    |    |    | 계  |     |    |     |
|-----------|-------|-----|----|-----|-------|----|----|----|----|-----|----|-----|
|           | 공립    | 사립  | 대학 | 계   | 공립    | 사립 | 대학 | 계  | 공립 | 사립  | 대학 | 계   |
| 서 울       | 1     | 34  | 15 | 50  | 1     | 22 |    | 23 | 2  | 56  | 15 | 73  |
| 부 산       | 1     |     | 4  | 5   | 1     | 1  | 1  | 3  | 2  | 1   | 5  | 8   |
| 대 구       |       | 2   | 2  | 4   |       |    |    |    |    | 2   | 2  | 4   |
| 광 주       | 1     |     | 2  | 3   | 1     | 1  |    | 2  | 2  | 1   | 2  | 5   |
| 인 천       | 1     | 1   |    | 2   |       | 3  |    | 3  | 1  | 4   |    | 5   |
| 대 전       | 2     | 3   | 4  | 9   | 1     | 2  |    | 3  | 3  | 5   | 4  | 12  |
| 울 산       |       |     |    |     |       |    |    |    |    |     |    |     |
| 경 기       | 2     | 24  | 1  | 27  |       | 13 |    | 13 | 2  | 37  | 1  | 40  |
| 강 원       | 4     | 7   | 4  | 15  |       |    |    |    | 4  | 7   | 4  | 15  |
| 충 북       | 4     | 3   | 4  | 11  |       | 2  |    | 2  | 4  | 5   | 4  | 13  |
| 충 남       | 1     | 9   | 2  | 12  |       | 3  |    | 3  | 1  | 12  | 2  | 15  |
| 전 북       | 1     | 2   | 4  | 7   |       |    |    |    | 1  | 2   | 4  | 7   |
| 전 남       | 2     | 3   | 1  | 6   | 2     | 1  |    | 3  | 4  | 4   | 1  | 9   |
| 경 북       | 7     | 4   | 5  | 16  |       | 2  |    | 2  | 7  | 6   | 5  | 18  |
| 경 남       | 4     | 7   | 2  | 13  |       | 1  |    | 1  | 4  | 8   | 2  | 14  |
| 제 주       | 2     | 8   | 2  | 12  | 1     | 1  |    | 2  | 3  | 9   | 2  | 14  |
| 계         | 33    | 107 | 52 | 192 | 7     | 52 | 1  | 60 | 40 | 159 | 53 | 252 |

인천시립박물관 건립 이후 2002년 8.31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등록 박물관 수는 28개이고(부표 참조),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향토관 포함)은 8개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없는 시·도(향토관 제외)는 대구·대전·충남·경남·경북 등이다. 공공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이후로 지방자치 실시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화 자원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지역박물관의 설립이 그 이전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자치와 함께 문화자치 시대로 갈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물관 건립 단계에서부터 본래 지역박물관으로서의 기능 다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행정 편의주의에서 지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의 경상북도 A시가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A시에서는 1997년 부지를 확보하고, 2002년 6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4년 준공을 목표로 2002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은 건물의 설계와 건립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하는 전시기본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역 출토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물관에 있는 대여하여 전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 건립의 기본틀을 무시한 채 자치단체에서 건립부지와 재정이 확보되어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식의 탁상행정을 펴고 있지만 이것이 통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문화관광부의 재정지원도 한 몫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확보되면, 건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지역에서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부지와 재정을 확보하여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신청을 하고, 이 재정지원이 확정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건물 공사를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빚어진 기형적인 박물관 건립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를 일이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B시의 경우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박물관 건립기본계획을 세우고 유물도 어느 정도 수집한(물론 체계적인 수집은 아니지만) 상태로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였지만,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결국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수집한 유물조차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썩거나, 없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C시에서는 전시관을 지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시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 높아 다른 문화부분에 다른 시에 비해 예산이 많은 편이지만, 전시관만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이라 할 수 있다.

위의 3가지의 사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박물관 설립의 문제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한 때 1,00개의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였고, 또, 2005년까지 500개의 박물관을 세운다는 목표가 있다. 그러니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기본계획, 소장유물이나, 유물수집계획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와 재정이 확보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박물관을 건립하여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지 그 후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박물관을 건립하였다는 단체장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박물관이 단순히 건물을 짓고 그 곳에 이 유물 저 유물 모아 전시해 두는 시기는 지났다. 지역박물관은 지역단위 연구와 자료수집에 구심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장소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박물관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육기관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추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은 또한 전통문화의 단절현상을 방지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지역박물관이 지역문화의 중추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지역민의 의견, 박물관 성격, 자료의 수집 계획, 전시의 기본계획, 개관 이후의 운영 등등의 기본구상이 있고, 건물의 설계·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물관은 일차적으로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되어 조형성 지닌 박물관 건물을 지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명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박물관은 그 내용상 지역문화에 관해 종합적으로 전시할 수도 있고, 지역문화의 특징적 요소를 중심으로 전시하거나, 하나의 전문박물관 형태로 계획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의 지역박물관의 현황에 따르면, 대체로 종합 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곳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역사나 민속 박물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전시의 내용은 고고·역사자료 전시는 선사부터 현대까지 시대순서로 나열하고, 민속자료는 민속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가 많다. 따라서 박물관의 성격이 종합적이고, 전시내용은 유사성을 보여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박물관의 형태로 건립하거나, 기획하는 사례도 보인다(石大權, 2000, 2-3쪽).

전시는 단순히 전시자료의 진열만이 아니고 일반시민, 즉 남녀노소의 폭넓은 연령층과 학생으로부터 학술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도록 배려하면서 일반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전시의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 많은 지역박물관들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아무런 계획 없이 건물만 먼저 세우고, 자료를 나열하면 될 것이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박물관은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며, 지역문화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사회의 문화환경에 따라 특성있고 뜻 깊은 지역박물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건립목적을 먼저 정립하고, 장·단기계획 아래 그 특성을 결정하여 그 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장품의 수집, 전시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화려하고 큰 것을 노리기 보다 개성있고 뜻 깊은 박물관이 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 일과성 전시효과를 노리

는 행사성 전시관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박물관을 지역문화의 영구적인 수장·전시의 장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뜻이다.

## 2. ‘지역문화가 살아있는 자료관’으로서 지역박물관

이제 박물관은 더 이상 ‘박제화된 전시’와 유물을 모아두는 ‘수장고’의 역할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박물관이 단순히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들을 수집·보관·전시하는 수동적 소극적 의미를 지닌 장소가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공간 혹은 문화적 모임의 장소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 과거의 박물관이 정지된 모습이었다면, 앞으로의 발전된 모습은 현재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 문화예술 공간의 중심체로 다양한 변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요구와 지향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박물관의 운영자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당국에서 그 필요와 의미를 먼저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예 산과 전문인력면에서 절대적인 부족이 큰 문제인데, 이는 지역박물관이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센터로써 사회교육기능이나 연구센터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들 기구가 단지 고답적인 자료 수장고로서만 존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李海濬, 1997, 12쪽).

지역박물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본 임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의 기능,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기관의 기능,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 하는 기능, 지역사회를 연구와 전시에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선도하는 기능,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을 뒷받침하는 기능,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의식고취, 향토교육의 담당 등도 지역박물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먼저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박물관이 짓기는 하되 행정적인 관리만 하는 식으로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의 배치만이 체계적인 자료수집·정리도, 지역자료의 연구·조사도, 사회교육활동도 가능하여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3.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역박물관

현대의 박물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분담들 중에서 사회교육이라는 영역이 점점 더 증대되면서,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을 포함하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활의 재창조에 기여해야 하는 효과를 창출하도록 지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영역에 관광이라는 역동성이 참가하면서 박물관은 더 이상 자료의 보존과 전시라는 소극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의 재생과 재창조라는 적극적인 자세의 창출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의 많은 박물관들은 전시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열중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련의 움직임 중 하나이다. 박물관에서 행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박물관 관련 웹사이트 개발 등이 그 사례이며, 이들은 대중들이 즐겁게 찾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는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운영도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관광객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 관광객들이 방문대상지로 박물관을 관광객에서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제1차적으로 박물관 자체내의 홍보활동의 강화이다. 다른 관광분야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선전하듯, 박물관이라는 상품을 잘 포장하여 관광객을 적극적 유치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각국의 박물관에 PR 담당 부서가 독립되어 있고, 그 업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박물관이 국민이나 관광객에게 파고들어야 하는 하나의 계기가 바로 관광산업의 진흥에 연관지어지는 것 ”이라는 주장은 이런 면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박물관도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단순히 지역의 자료수집하고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민과 그리고 방문객이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 III. 박물관 조직과 운영

#### 1. 박물관 조직의 형태

흔히 박물관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는 박물관 자체(자료와 공간), 박물관 종사자,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박물관 운영은 바로 이 3가지 요소와 연관된 문제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박물관이란 박물관을 운영하는 기술이다 하는 의견이 있을 만큼 중요한 분야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프랑스 박물관학자 Pierre Schommer의 “박물관과 운영”이란 글에서 박물관의 운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Schommer, Pierre, 1960, <Administration of Museum> in 《The Organization of museums-practical advice》Paris, Unesco).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일반조직, 설립과 폐지, 규약 등에 관한 논리를 국가와 박물관, 사회와 박물관이라는 입장에 서서 박물관에 대한 국가적 권한과 책임 및 사회에 대한

박물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논하고 있다.

한편 후반부에서는 인사, 수집품, 접수, 장기간 위탁, 자료관리, 건물, 소장품의 기재, 보조기록, 자료의 소재와 이동, 시설과 용도·보안, 홍보, 입장 규제, 관람규칙, 매점 운영비(수집원, 예산) 등 상당히 자세하게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방법이나 기술에 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실천론을 열거하고 있다(新井重三, 1979, 27).

이와같이 박물관 운영은 박물관을 둘러싼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운영방법은 설립주체나 규모에 따라 그 초점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지만, 운영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의 활용의 정도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물관의 조직은 박물관의 유지하고 운영하는 인적구성을 어떻게 배치하는냐는 것이다. 인적구성 요소는 박물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달리 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첫째, 박물관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간에 수평적으로 유지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역사·민속·미술·민속·자연사 등 각 학문분야로 학예연구부서와 보존과학·전시·교육·홍보부서가 서로 동등한 수평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한다.

둘째, 박물관이 생존하기 위한 자금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형태로서 연구부서와 여러 사업부서로 나누고 일반행정을 축소한 형태이다.

셋째,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예연구실과 박물관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로 나누는 구조이다.

넷째, 지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산하 박물관에 대한 책임을 학예연구실을 적절하게 배정한 형태이다.

다섯째, 박물관의 기능 보다 건물에 따라서 관리기구를 편성하는 형태로 건물별로 학예연구기관이 있고, 학문분야별로 부책임자를 둔다(김중혁, 1994, 61쪽).

이런 다섯 가지 형태에서도 기본골격은 학연구부서와 행정지원부서로 나누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각 박물관이 강조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일할 수 있는 형태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박물관법에는 박물관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 2000. 1. 12 법률 제6130호)에서 제6조에 학예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① 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美術館 事業을 담당하는 博物館·美術館 學藝士(이하 "學藝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學藝士는 1級正學藝士, 2級正學藝士, 3級正學藝士 및 準學藝士로 區分하고 그 資

格制度의 施行方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學藝士는 國際博物館協議會의 倫理綱領과 國際協約을 遵守하여야 한다.

이 박물관법에는 학예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원수에 관해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조문은 읽기에 따라서 박물관은 학예사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외에 제2장 국립박물관, 제3장 공립박물관, 제4장 사립박물관, 제5장 대학박물관에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이다. 국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그 직제가 정하여 지고, 그에 따라 전문직과 사무분야로 나누어 운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립박물관은 설립과 육성이란 조항만 두고 있어 설립자에 따라 적당하게 운영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외에 박물관 조직과 관련한 법적인 장치로 박물관법 제7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 제7조 (運營委員會)

-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國・公立의 博物館 및 美術館(各 地方分館을 포함한다.)은 專門性 제고와 公共施設物로서의 效率的 運營과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당해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 ② 運營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박물관법 시행령 제6조에는

#### 제6조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이번 개정 박물관 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나, 이 또한 국공립 박물관에만 적용하고 사립박물관은 제외되어 있다. 사립박물관의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학예사나 운영위원회 등 어떤 박물관 조직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아무튼 박물관 조직이란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잘 보존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관련 기록과 정보를 문서화하며, 전시를 통해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의가 없을 것이다.

## 2. 박물관 학예사의 문제

박물관 조직에서 학예요원은 필수요원이다. 행정직은 일반행정 예산 인사관리 등을 통해 박물관의 활동을 돕고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수집품의 등록 관리와 문서화를 위한 유물관리원과 유물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과학요원이 있어야 한다. 박물관은 수집품을 전시하여 일반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해설을 해야하므로 전시 디자이너와 교육을 위한 박물관 교사가 필요하다. 박물관은 수집품, 시설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전기기계 건축 등의 기술직과 경비원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 봉사자를 위하여 사서직, 홍보요원 안내요원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도 전국박물관 현황을 보면, 박물관 192개, 미술관 60개로 252개이다(표2 참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1815명이고 전문직이 593명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은 직원이 422명이고, 전문직이 87명이다. 전체 박물관 1관당 전문직원 수는 2.3명으로 나타났으나, 공립박물관은 3.1명으로 전체 보다 약간 높은 편이긴 하다.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는 전문분야의 연구자가 있고, 박물관의 연구자가 있고, 그 실기자도 있는 多面性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료의 보존 기술자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연구자이고, 교육자이고, 기술자이기도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한사람이 전부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생각하면, 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그 박물관의 활동의 정체를 불러온다. 박물관의 활성화는 학예직의 근무 여건과 근무인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 모두 열악한 형편이다.

학예사의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학예연구원이 처한 문제점 가운데 수입정도, 도서구입정도 상태, 학예원 충원 상태, 연구활동 등이 열악하다. 근무 환경에 만족하는 학예연구원 수가 8%에 불과하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이가, 50%, 40%가 불만, 기타 2%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불만이고,

이직율이 높다.

또,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원이 적정수준이 되어야 박물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 또한 자료에 의하면, 학예연구원 수가 1-3명이 80%, 4-7명 12%, 8-10명 6% 11명 이상이 2%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박성용, 1996, 28-29쪽, 이상덕, 1996, 191-196 참조)

이러한 인원과 직원 체제로 만족한 박물관 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사립 박물관은 그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박물관법에 규정한 학예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과연 이 조항으로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에 맞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박물관 상당시설에 까지 적용한다면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외국 박물관 조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예직과 사무직으로 2대분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른 것은 학예직의 수이고, 중간 규모 이상의 박물관에서는 일반 사무직 보다 학예직이 더 많다는 것이다.

사무직도 전반적으로 사무, 관리, 보수 등에 관련하고, 학예관계 각 분야에도 전속 사무직원이 붙어 있어 그 부분의 사무처리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문직원이나, 전문기술자는 본래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학예직도 학예부, 교육부, 보존수리부 등이 있고, 각각에 Curater, Keeper, Educator, Conservater 등을 배치하고, 각각의 부문에 전문기술자가 있다. 박물관 전문기술자로서는 전시제작,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디자이너, 사진기술자, 공작기술자, 표본제작기술자, 보존복원기술자 등이 전임으로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 관계도서관의 수집 관리 서비스를 위해 司書가 있는 것도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도가 박물관의 설립자나, 문화정책 입안자 등의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한 날 꿈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학예사는 모습은 무엇일까?

박물관의 기능은 조사·연구·수집·보존이고, 여기에 교육·홍보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이 전시 개념의 위주에서 대중과 함께 하는 박물관으로 사회교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박물관 학예직의 업무 또한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표2 참조).

<표 2. 박물관의 기능체계>

| 목적기능(상위개념)                              | 방법기능(하위개념)    |                     | 비 고                                |
|-----------------------------------------|---------------|---------------------|------------------------------------|
| 자료의 보존과 계승                              | 수 집           |                     | 실물은 현지보존하는 경우이다. 그 때는 정보 기록을 수집한다. |
|                                         | 정리·분류         |                     | 원자료→박물관 자료                         |
|                                         | 보존            | 관내보존                | 박물관 자료의 보존                         |
|                                         |               | 현지보존                | 원자료의 보존                            |
| 조사·연구와 발표<br>(예술·과학의 진흥)                | 박물관학적 연구      |                     | 분류학, 형태학, 생태학 등 기타                 |
|                                         | 박물관학적 연구      | 이론연구<br>Museology   | ‘박물관의 방식’ 생태학 등                    |
|                                         |               | 실천연구<br>Museography | ‘박물관 활동의 실천 방법’의 연구                |
|                                         | 발표(학회발표·논문발표) |                     | 주로 언어 및 문학매체에 의한 발표                |
| 자료 및 연구 성과의<br>환원과 교육·보급<br>(환원·교육의 진흥) | 환원            | 정보자료센터              | 시민에 대한 서비스활동                       |
|                                         |               | 레크레이션               |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                      |
|                                         | 교육            | 전시                  | 관내교육활동(전시품 설명 기타)                  |
|                                         |               |                     | 관외교육활동(채집회, 견학 등)                  |
|                                         |               | 체험학습                | 실내, 야외에서 실습, 실습 견학회                |
|                                         |               |                     | 장기강습회(강연, 강연 등)                    |

(新井重三, 1979, 27)

“현재 학예사는 극단적으로 말하여 넓은 교양을 가지고, 분석적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그것을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전시를 하므로 사회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학예사는 스스로 연구자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육자적 요소의 쪽이 현재의 학예사로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할 만큼 사회교육 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것은 Museum Educator의 일이고, 학예사는 전문연구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예사는 박물관의 전문직이기 전에 그 사람이 소속하는 학문분야의 전문연구자이고 싶다는 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여기서는 박물관의 교육 기능은 대체 누가 담당할 것인가, 보급과에 소속하는 학예사는 자신은 본래 자료의 연구자로 있는 위치이고, 단순히 업무상으로 보급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예사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19세기적인 전시대로 역행하는 것 일 수 밖에 없다. 학예사 제도는 전혀 분화되어 있지 않는 지금, 학예사는 연구자이고, 교육자이고, 기술자라고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기술자 밖에 없는 박물관에서는 충분한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학예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학예사의 성격을 가지고, 풍부한 박물관 활동, 교육활동의 실기자로서 자기를 위치시켜야 하지 않을까

### 3. 박물관장의 문제

박물관의 정신은 관장 개인에게 울어 나온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Karl Gathe은 "So you want a good museum"에서 "관장은 박물관 업무 수행방법과 목적에 정통해야 하며, 박물관의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 마치 전도사와 같은 정열을 쏟아야 한다. 어떤 계층의 인사에게도 친근감을 주며, 사무적으로 박물관을 원만하게 운영하며, 전문가에게도 박물관의 기능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뚜렷한 자신감과 인내력, 그리고, 독창력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운영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서는 탁월한 능력과 판단력을 크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박물관장은 학예사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수완, 사무능력, 관리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누가 박물관이 되어야 하나 그 해답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박물관장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데는 별로 의의가 없는 듯 하다. 이 전문경영인은 박물관학을 이수 한 경영과 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즉 학예직의 출신이어야 된다는 해석이다. 이 박물관 전문경영인은 박물관 설립·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갈수 있다(최종호, 1996, 25쪽)

한편 꼭 박물관장이 학예직이어야 하는냐 하는 문제다.

박물관장이 꼭 학예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경영능력이 출중하면서도 박물관 사업에 애정과 지식이 겸비된 인사라면 그에 어울릴 것이다. 이는 물론 경영학 전공자가 박물관에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거꾸로 학예직 출신의 관장에게는 경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이종선, 1998, 52쪽)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을 박물관 하게 되면, 관장은 과연 누가 가는가.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자리는 공무원 몇급 자리이고 이곳에 누구가 가면 인사적체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등이 말이 오고간다. 박물관 건립이 곧 해당 시·군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의 기회로 보는 시각으로는 미래를 보는 박물관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

#### 4. 박물관 운영 방향

지역문화의 기록·보존·전시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박물관의 건립일 것이다. 박물관은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함축적이고 생생하고 활력있게 보여주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박물관은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성원에게 다양한 경험과 위락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의 운영은 시설, 인력, 재정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립 박물관은 재정과 공무원 정원제로 전문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하며, 박물관 활동 또한 부실하기 그지 없다. 전문직이 적지만 모두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미륵사지유물박물관, 문경재박물관, 안동시립박물관 등이 그 예이다. 평가방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3곳,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박물관이 3곳이나, 군단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한 곳도 없다.(한동민, 2002, 49쪽 참조) 이들 기관의 우수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박물관의 한강과 임진강 등 경기지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관 확보함으로써 박물관 교육 기능 강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관광지 제주도 특성에 맞는 기획전시와 관람권 자동발매시스템 도입 등이 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박물관 운영의 새로운 활로는 박물관의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 또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공립박물관은 아니지만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남대학교 박물관 운영 사례는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각 박물관의 실정에 따라 참고할 만하다(영남대학교 박물관 운영 사례 참조).

미래의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통적인 박물관의 역할에 더하여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박물관은 문화·지식산업 센터로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가야만, 자생력을 가진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박물관이 이른바 제3세대 박물관의 특성이 아닌가 여겨진다.(표3 참조)

<표 3. 박물관 운영형태의 변화>

| 박물관 발전  | 제1세대 박물관               | 제2세대 박물관                         | 제3세대 박물관                                   |
|---------|------------------------|----------------------------------|--------------------------------------------|
| 운영체제    | 고립, 유유자적<br>(관계자만이 대상) | 계몽적 어필행위                         | 대사회적 메시지<br>(사회적 존재를 주장)                   |
| 관장      | 명예적 관장                 | 행정직, 비상근관장                       | 전문직 관장                                     |
| 홍보활동    | 비실행                    | 학예원에 의한 부분<br>적·일시적 시도           | 퍼블리시티 담당자에 의한 계<br>통적 실시와 관의 이미지 형<br>성    |
| 조례·기부행위 | 없음                     | 관계법령 의거                          | 독립된 목표를 명기하고 구체<br>적 방침을 제기                |
| 박물관협의회  | 없음                     | 문화재 관계자를 중심<br>으로 연수의 형식적 회<br>합 | 시민의지의 반영의 장소로서<br>시민 대표의 참가와 권한이<br>행사를 보장 |
| 연보      | 없음                     | 사업보고 중심                          | 박물관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br>의견발표                   |
| 휴식소     | 변소                     | 소파나 재털이 정도                       | 레스토랑과 커피숍 등                                |
| 매점      | 없음                     | 안내카운터를 겸한 그<br>림엽서, 도록 등의 판<br>매 | 전문서로부터 관계서적<br>자료관련의 미술공예품 등을<br>찾춘 뮤지엄 샵  |

(서상우, 1995, 37쪽 참조)

#### IV. 지역박물관 건립과 운영의 과제

지역문화의 기록·보존·전시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박물관의 건립일 것이다. 박물관은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함축적이고 생생하고 활력있게 보여주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박물관은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성원에게 다양한 경험과 위락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박물관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지역박물관은 그 계획단계에서 적어도 지역민의 의견, 박물관 성격, 자료의 수집 계획, 전시의 기본계획, 개관 이후의 운영 계획 등의 기본구상이 있고, 건물의 설계·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부지와 지방재정이 확보되었다고 재정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인지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박물관 건립 계획 단계에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박물관도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에 따라 특성화 된 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특히 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전문박물관의 건립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지역민과 함께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박물관의 활용도를 높여야한다.

다섯째, 지역박물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도 도입, 박물관의 협력망 구축이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 재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기금의 확보 등등이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박물관의 재정과 인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21세기는 문화 세기라고 모든 지도자들은 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책이나, 지원에는 '나 몰라' 하는 식이다. 문화의 세기에 박물관을 활성화하자면, 지역의 지도자, 정책입안자와 결정권자, 정치 지도자 등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중혁, 1994, <민속박물관의 설립형태 및 조직과 운영>, 민속박물관의 세계, 온양민속박물관
- 서상우, 1995,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기문당
-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
- 박성용,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토론문,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
- 이상덕, 1996, <국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
- 이종선, 1998, <박물관 조직과>에 관한 토론, 제1회 박물관학술대회 토론요지, 박물관학 1, 한국박물관학회
- 석대권 2000,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의 목적과 성격>,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전시기본계획》, 상주시·상주대학교부설산업과학기술연구소
- 2000, <박물관과 교육과정연구>, 대전보건대학 논문집 제21집, 대전보건대학
- 이영진·석대권·구자봉 編著, 2000, 《박물관 전시의 이해》, 교학사
- 이해준, 1997, <지역 박물관과 지역사 자료정리>, 박물관학연구 제2호,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
- 한동민, 2002, <2002년 박물관 운영 평가 발표>, 제5회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자료집, 문화관광부.
- 성태규, 2002,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박물관>, 제5회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자료집, 문화관광부.
- 新井重三, 1979, <博物館學(理論)と博物館實踐學>, 博物館學講座1-博物館學總論-, 雄山閣出版
- 新井重三, 1979, <博物館の機能と活動>, 博物館學講座1-博物館學總論-, 雄山閣出版
- 下津谷達男新, 1979, <博物館職員と組織>, 博物館學講座1-博物館の設置と運營-, 雄山閣出版
- 新井重三, 1979, <博物館の機能と活動>, 博物館學講座1-博物館學總論-, 雄山閣出版
- 後藤和民, 1979, <郷土博物館>, 博物館學講座4-博物館と地域社會-, 雄山閣出版
- Gary Edson and David Dean, 1994, The Handbook for Museum, Routeledg







## **【참고자료 : 영남대학교 박물관 운영 사례(성태규, 2002, 75~77쪽 참고)】**

### **1. 전시부문**

가. 전시파넬의 국제화 : 각 전시실 유물 안내 파넬과 민속원의 각 건물 안내문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작성하여 2002년에 완전히 교체하였다. 이것은 영남대박물관에 유치원, 초중고 학생, 일반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람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실마다 팸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현재는 팸플렛이 국문으로만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영문, 중문, 일문, 팸플렛을 제작할 예정이다.

나. 정기적 특별전 개최 : 영남대 박물관은 1997년 이후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 오래된 사진기전(1997)
- 무이구곡도전(1997)
- 한국의 옛지도 전국순회전(1998. 서울. 전주. 청주. 목포. 대구 순회)
- 한국의 옛지도 귀교전(1999)
- 안영주기증 오정·소정 컬렉션 특별전(1999)
- 민화의 세계 특별전(2000)
- 고구려-집안에서 경주까지 특별전(2000.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유치)
- 면과 선의 세계 특별전(2001년. 김해, 진주국립박물관 순회전시)
- 고대의 화폐(2001. 계명대와 교환전시)
- 추사와 그 친구들 특별전(2002. 국공립 박물관에 순회전)
- 영남대학교 개교 55주년 하교사 전시(2002년)
- 고대의 말전(2002년.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 중)

### **2. 연구부문**

- 문화재발굴조사팀 운영(발굴 및 시굴조사;1996년 이후 13회 실시)
- 문화재 지표조사팀 운영(1996년 이후 7회 실시)
- 민족지조사팀 운영(1996년 이후 매년 현지조사 실시)
- 문화 역사관련 전국학술대회 유치(1996년 이후)  
한국 상고상고사학회(1998년 5월) 유치  
한국문화인류학회(2001년 5월) 유치  
한국박물관 전국학예연구원 학술대회 개최(2002년)

### 3, 사회교육 부문

가. 박물관 문화강좌: 1990년 1월 17일에 출발한 박물관 문화강좌는 현재 25기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2년 2학기부터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박물관 문화강좌를 수강해 왔던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문화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였다. 영남대 문화강좌는 국내지역은 물론 해외문화학습을 위하여 해외현장답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외문화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해외문화답사 역시 수강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 해설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영남대학교 박물관을 2년 연속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의뢰함으로써 영남대박물관은 문화관광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영남대 박물관은 영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부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현재 박물관에서 6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노인문화강좌 프로그램 : 영남대박물관은 2001년 1학기부터 학내 노인문제연구소와 협력하여 노인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들은 이 문화강좌를 통해 전통 음악반, 전통무용반 등의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민속원을 노인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장으로 기능을 하기도 한다.

라. 민속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 영남대박물관은 한국문화체험의 교내 기반시설인 민속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서당체험교실 운영(여름 겨울방학 중)
- 한문강독교실 운영(연중)
- 다도교실 운영(연중)
- 전통음악, 무용 체험학습장 운영(노인문화강좌 수강생 동아리 활동)
- 민속놀이 체험학습장 운영(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 전통관례(성인식) 재현(매년 5월)
- 서원향사 거행(매년 10월- 지역유림과 협동)
- 초중등학생을 위한 탁본실습
- 전통농경기술 체험(모심기, 벼 베기, 새끼 꼬기, 이엉 잇기 등)
- 허수아비제작 실습 및 전시

#### 4. 특정사업

1) 문화콘텐츠사업 : 영남대박물관은 문화콘텐츠 개발팀을 현재 구성하여 박물관 소장품 중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능화판, 노리개, 민화, 떡살, 다식판 등을 대상으로 문화상품 개발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2)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프로그램에 이어 본교 한국학부와 연계하여 한국학부 졸업생, 한국학부 대학원생, 전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60명을 모집하여 문화관광 해설전문가를 현재 양성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교과과정을 개설하여 문화전문인력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 3) 야외민속박물관의 개발

초가, 울릉도 너와집  
민속원 입구 늪지의 개발  
민속놀이장 개설  
모심기김매기의 축제화  
국악공연 및 전통무용 상설 공연  
저자거리 개장  
고가 보수 및 번화 작업

#### 4) 문화체험 거점지 확보 사업

경주 교동 최부자집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동래정씨 가옥  
경북 상주 갈가실 마을 등을 문화체험 거점지로 확보

## 지역 종합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

주 인 택(광주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
- III. 지역종합박물관의 과제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옛것들이지만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미래의 기관임은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 행적들에 대한 진솔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축적된 삶의 지혜를 이어받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박물관에는 국가나 민족이 지나온 행적이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소장되고 있다. 박물관 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대의 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선도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대는 학문의 분화에 따라 여러 분야의 박물관이 탄생하고 있다. 연구된 업적은 박물관의 전시로 연결되고, 박물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즉 박물관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전달 확산하는 매체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분야를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수박물관들이 생겨나면서 전문지식의 대중화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순기능은 대중들의 지식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빈부와 계층을 떠나 삶의 균질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물관을 21세기의 핵심문화시설이라고 하고, 그 숫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며, 박물관의 수에 따라 문화수준을 가늠하기도 한다.

지구촌시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밀레니엄시대 등 새로운 용어들이 대표하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또는 ‘문화전쟁의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얘기되고 있다. 문화의 진흥과 발전 보급문제는 모든 나라와 민족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중심문화의 패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문화

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만큼 지역에 있는 박물관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전문가들은 21세기 박물관 경영의 핵심은 새로운 박물관의 설립보다는 현존하는 박물관 기능의 개선과 박물관간의 상호 협력 증진에 두고 있다.<sup>1)</sup>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러한 선진적인 박물관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우선 그 역사가 일천하여 수적인 면에서 부족하고, 박물관학이 보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또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어느 학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넘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1만 달러를 넘어서야 자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다고 하였다. 이를 대입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제적인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박물관도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각종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향수권 충족과 이미지 부각을 노리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이 순기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우선 박물관의 수적인 증가와 아울러 현대적인 운영방식 도입, 그리고 박물관 이용객이 많아야 한다.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방식을 검토해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박물관, 그 중에서도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종합박물관을 중심으로 현상적인 입장에서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

### 1. 지역종합박물관의 범위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야 하겠다. 오늘의 주제는 ‘지역’과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공간적으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성격적으로는 종합박물관으로 각 지역에 있는 종합박물관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우선 지역이라 하면 중앙에 종속된 지방이라는 용어와 달리 그 자체가 독립된 개념으로 일정한 땅의 구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방은 공간을 수직적으로 나눈 개념이라면 지역은 수평적인 개념이다.<sup>2)</sup>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곳은 지방에 대한 중앙에 해당되지만, 독립된 공간영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에 해당된다.

종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것이

1 캐리 에드슨·데이비드 던 지음. 이보아 옮김. 『21세기 박물관 경영』, 시공사. 2001

2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 역사문화학회 편, 학연문화사, 1998, pp. 20~24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을 전시내용이나 소장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때는 주제박물관<sup>3)</sup>과 종합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 加藤有次는 종합박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다루는 자료는 여러 과학분야 중에서도 형이하학적인 분야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매체로 한 활동도 자칫하면 물질문화의 변천과 현상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박물관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대자연 속에 사는 인간사회의 지혜의 구조를 분석하는 곳이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등의 개별적인 학문이 아니라, 이러한 학문들을 종합하여 인간생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추구하는 궁리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종합박물관이다.<sup>4)</sup>

즉 종합박물관은 인간사회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여러 학문을 공동연구 해야하는 곤란함이 장애요인이라고 적시하면서 이러한 박물관은 매우 이상적인 박물관에 속하며, 실제로 있다면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의 종합박물관 정의는 일본의 박물관 설치기준에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양 분야를 통틀어 종합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박물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의 독립분야에서 각각 2분야 이상을 아우르는 경우에도 종합박물관으로 정의하기도 하다.<sup>5)</sup> 인문과학을 예로 들면 고고, 역사, 향토, 문화, 민속, 미술 등의 여러 분야 중에서 2분야 이상을 다루는 곳이 종합박물관이라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빌어 종합박물관과 주제박물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우선 박물관의 법체계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이러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없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종합’과 ‘주제’ 박물관을 개념상 분류는 하고 있으나 개별 박물관마다의 실제적인 정확한 분류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등록된 박물관 중에서 종합박물관으로 분류된 곳은 6곳에 불과하다.<sup>6)</sup>

그러면 종합박물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 국립박물관은 모두 종합박물관

3 주제박물관은 전문박물관, 특수박물관, 테마박물관 등으로도 불리운다.

4 雄山閣出版, 『博物館學講座1』, 1979, p.197

5 雄山閣出版, 『博物館學講座1』. pp. 191~199

6 종합박물관으로 분류된 곳은 다음과 같다. 충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부산박물관, 한국민속촌박물관(등록번호순)

에 속한다 할 것이다. 공립박물관을 분류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광주민속박물관이나 안동민속박물관은 기관명칭과 전시내용 때문에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향토사자료 등은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기획전시회나 교육 또는 연구기능에 있어서 향토의 역사와 문화도 주제로 잡아 활동하고 있고 성과물도 발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시립 군립박물관이나 향토사료관들도 그 지역의 고고, 역사, 민속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관의 명칭이나 규모의 대소에 관계치 않고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수집 전시하는 주제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두 종합박물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분류하는데 전시내용 뿐만 아니라 소장자료의 종류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소규모의 박물관도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은 국립박물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아직도 운영측면에서 후진적인 입장에 있는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지역종합박물관의 설립 추이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이 개관되어 국립박물관이 전시품의 대여와 운영을 시작한 것이 공립박물관의 시작이다.<sup>7)</sup> 해방이 되자 이경성(李慶成)을 비롯한 인천의 뜻있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인천에 살던 일본인들의 소장유물과 그들이 운영하던 향토관 유물의 인수하는 노력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전시유물이 부족하자 국립민족학박물관 유물 75점과 국립박물관 유물 19점을 차용하여 세창양행(世昌洋行) 사택에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공식적인 개관일자는 1946년 4월 1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 세워진 날이다.<sup>8)</sup> 대구시에도 시립박물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건립연대와 운영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방 후에 달성공원에 건립되었는데 한국전쟁시기에 유물망실과 훼손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폐관하게 되었다고 한다.<sup>9)</sup>

그 후 1960년대에는 전주와 광주에 각각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전주시립박물관은 1963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경기전 내에 도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1976년 3월 전라북도의 사업소 정리방침에 따라 전주시로 이관되어 시립박물관이 되었다. 운영 당시 주로 고고학 자료의 전시 및 수집에 치중하였으며, 90년 국립전주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두 박물관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흡수되어 버렸다. 광주시립박물관은 1963년 5월 29일에 독립으로 개관하였다가 1964년 광주시로 이관되었고, 1987년 현재 광주광역시립민

7 이난영, 「국공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3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발표요지), 1999. 11. 26. p.9

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1998, p.3

9 윤정혜(대구광역시향토역사관 학예연구사)의 증언

속박물관으로 확대 이전하였다.

이 때의 공립박물관들은 시설 인력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규모의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기능면에서는 지방에 있었던 유일한 박물관으로 각 도의 매장문화재 취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sup>10)</sup> 즉 지방에 국립박물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립박물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공립종합박물관으로서는 부산시립박물관이 유일하게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의 건립은 1960년대에 추진되어 1963년 용두산공원에 기공식까지 마쳤으나 때마침 불어 닥친 관광사업으로 인하여 미루어졌다.<sup>11)</sup> 15년 후인 1978년 7월 11일 현 위치에 개관한 부산시립박물관 건립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때까지 대구, 인천, 전주, 광주에 있었던 공립박물관들은 박물관 건물로 설계되지 못한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고, 학예연구실을 비롯한 조직이 없었던 관계로 실질적인 박물관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립박물관은 박물관 건물로 설계되었고, 직제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이 짜여졌으며, 관장도 학계의 전문가(초대관장 : 김정학)로 임명되고 학예연구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박물관으로 출발하였다. 시설과 인력, 그리고 운영 등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공립박물관이 탄생한 것으로 이후 각 시·도 박물관 건립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충주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거창박물관 등 4개의 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이 시기는 70년대의 산업화 영향으로 점차 시·도에서 박물관 건립추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때이었다. 또 전통문화의 기반이 와해되고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기로 민속박물관이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충주나 거창과 같은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박물관을 건립하기 시작한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시기이었다.

1990년대에는 안동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등 총 8개의 종합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주제박물관을 포함한 공립박물관으로 건립된 총 숫자가 23개관에 이르고 있으니 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박물관은 종합박물관(34.8%) 보다는 주제박물관(65.2%)의 비율이 높아 박물관의 건립이 전문분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박물관은 4개가 건립되어 이 시기의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건립한 박물관은 6개(26%)에 그치고 있어 박물관의 건립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금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등 3개

10 광주시립박물관은 개관이후 수행해왔던 매장문화재 취급업무를 1978년 10월 10일자로 국립광주박물관(1978. 12. 6 개관)으로 넘겨주었으며, 그 동안 보관해왔던 매장문화재 100,772점은 1979년 4월 17일자로 이관되었다.

11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연보』 1~2집, 1981

의 종합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믿었지만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도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이미 있었던 전주시립박물관의 폐쇄 후 12년 만에 다시 건립되어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공립박물관 설립추이 분석

|                 | 계  | 194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설립지원<br>(‘96~’01) |
|-----------------|----|--------|--------|--------|--------|--------|--------|-------------------|
| 공립박물관(A)        | 35 | 1      | (2)    | 1      | 6      | 23     | 4      | 48                |
| 종합박물관<br>(A중에서) | 17 | 1      | (2)    | 1      | 4      | 8      | 3      | 12                |

※ ()안은 확대개편(1), 흡수통합(1)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 계수에 포함되지 않음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96년부터 2001년까지 48개 기관 589억이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만 21개 기관에 159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sup>12)</sup> 이들은 대부분이 신규박물관으로 미개관 상태이므로 앞으로 박물관은 수적인 면에서 대폭적인 증가가 확실하다. 건립 지원을 받은 박물관 중에서 종합박물관으로 추정되는 곳은 동해, 원주, 화천, 속초, 정선, 논산, 천안, 남원, 순천, 영주, 경산, 마산 등 모두 12곳(25%)이다.

건립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개관한 박물관 중 주체박물관 비율이 65%이었던 것이 추진중인 박물관에서는 75%로 상승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박물관은 9개(18.7%)로 비율에 있어서 1990년대보다 적어지고 있다. 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은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종합박물관 보다는 주체박물관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 소도시로 확산 현상은 박물관의 보급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3.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

#### 1)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 (1) 서울역사박물관

12 박물관(미술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 액수는 전시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총액의 30%이다. 그러므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중이라는 얘기가 된다. 연도별 지원상황을 보면 96년 1관(30억), 97년 2관(20억), 98년 13관(80억), 99년 15관(122억), '00년 22관(178억), '01년 21관(159억)이다. (문화관광부 공식홈페이지)

2002년 5월 옛 경희궁 터에 연면적 20,165㎡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시립 종합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연간예산은 125억 5천만원이고 2002년 유물구입비는 약 30억원이다. 직원은 관장(계약직 3급상당)을 포함 일반직 55명, 전문직 20명 등 75명이다. 지금까지 ‘한성판윤전’(1997), ‘서울의 옛모습’(1998),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2002), ‘풍납토성’(2002) 등 5회의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어린이 역사탐험교실, 청소년박물관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서울역사박물관대학 등의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다.

## (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은 경기지역의 고유문화 유산을 조사, 발굴, 연구하고 이를 재조명하여 경기도 역사의 정체성 구현과 도민의 애향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종합박물관이다. 1986년에 박물관의 전신인 경기도향토사료실이 설치되었고 1993년에 건축 착공한 후 1996년에 개관하였다. 박물관의 총예산 69억 중 유물구입비는 15억이다. 직원은 관장(별정4급), 일반직 49명, 전문직이 22명이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쇼케이스를 밀폐형으로 개보수하였다. 1996년부터 매년 2-3차례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고, 1997년부터 박물관대학, 초중등학생문화학교 등 사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임시 휴관했다가 1953년에 이전 복관하였다. 1990년에 현위치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지 내(남구 옥련동 525)로 이전 개관하였고, 1993년에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유물은 주로 개화기의 자료가 많다. 관장은 행정직 5급이며, 예산은 총 13억 원이며 이 중에서 유물구입비는 1억원이다. 현위치로 이전 후 1991년부터 매년 1차례의 기획전시회와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1993년도부터 사회교육활동으로 박물관대학, 토요박물관교실, 박물관역사교실, 청소년박물관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안사업으로 제2전시관(기획전시실, 시청각실 등)을 2003년도부터 건립 예정으로 있다.

## (4)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1991년에 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전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전 지방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여 전시하였다. 1998년 도서관 한쪽 협소한 장소에서 별관건물로 이전 재개관하였으며, 2002년에는 문화체육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총예산은 1억 원이며 유물구입비는 없다. 관장은 문화체육국장(행정 3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일반직 5명과 전문직 2명이 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시민소장 문방사우, 한밭문화 1만5천년전 등 4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1993년 한밭의 마을신앙, 대전지방의 도요지 등의 학술조사가 있었다. 사회교육은 2003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5) 부산박물관

1978년 11월에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망라하는 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1996년 10월에는 지역 내 가야문화를 조명하는 복천박물관(시 지침에 따른 복천분관의 대외명칭으로 사용함)을 개관하였다. 소장자료는 21,000여 점이다. 관장은 별정직(3급 상당)이 맡고 있으며, 정규직원 60명 중 전문직은 20명이다. 2000~'0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한일관계 및 생활민속을 소개하는 제2전시관(6,280㎡)을 신축하고, 전시실을 개보수하였다. 연간 예산은 74억 7천만원이며, 이중 유물구입비는 5억원(2002년)이다. 개관 이후 매년 2~3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강좌를 열고 있으며, 연구조사 또한 활발한 편인데 고고학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 (6)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의 전신은 1963년 개관한 광주시립박물관이었다. 1979년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하자 민속박물관으로 확대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1987년 11월 1일에 개관하였다. 부지면적은 22,000평, 건축면적은 2,120평으로 건립 당시에는 국립박물관 중 최대의 규모이었다. 소장자료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속자료와 향토사자료 총 9,800여 점이다. 1992년부터 매년 1회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고, 매년 주제를 정해 조사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사회교육활동으로는 199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민속교실, 1994년부터 민속박물관대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는 문화부로부터 지역문화학교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광주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 고유의 고고 민속자료와 동식물 광물 해양생물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전시하고 있다. 1978년에 착공하여 민속과 자연을 종합 전시한 우리나라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1984년에 개관하였다. 1988년에 제주도문화진흥원 민속부로 개편된 후 1989년에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재개편되었다. '제주명사서화유작전', '제주해양식물사진전' 등 매년 3~4회의 기획전시회와 1990년부터 '동김녕리 동굴유적' 및 '제주도 곤충' 등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으로는 지금까지 박물관어린이교실, 박물관환경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총예산은 18억 4천만원이다. 직원은 관장(별정4급), 일반직이 18명, 전문직이 8명이다.

## 2)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 (1) 여주군향토사료관

여주군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여주군 신록사 관광단지에 개관하였다. 여주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연간예산은 1억 6천 2백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3천만원 정도이다. 박물관으로의 승격에 대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물확보에 치중하고 있다. 직원은 전문직 1명 등 총 2명이다. 특별전시회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석조유물(비석) 탁본전시회를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 (2)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은 삼척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보존하고 문화관광자료를 육성하며 삼척시민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학습과 휴식, 문화향수욕구의 충족을 위한 교육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개관하였다. 연간예산은 1억 9천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3천만 원이다.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장(5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일반직 6명, 전문직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있다. 특별기획전은 '기증유물전시회'(2002)를 개최하였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 박물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2 삼척세계동굴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운영하였다.

### (3)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1992년 영동지방의 민속 및 향토사 자료 및 연구를 위해 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부속건물로 개관 당시 향토민속관, 97년에 역사문화관이 각각 문을 열었다. '97년 오죽헌 관리사무소와 통합, 이듬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연간 예산은 23억원이며, 유물구입비는 5억원으로 주로 유물 관련된 유물의 구입에 소요된다. 관장은 학예연구관(5급)이며, 정규직원 15명 중 전문직은 4명이다. 기획전시회는 '95년부터 '김영숙선생 기증유물 노리개', '명안공주 관련유물', '아름다운 금강산전' 등을 개최하였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은 95년부터 박물관강좌(80명), 96년부터 교사를 위한 전통문화강좌(40명), 98년부터 청소년 문화강좌(150명)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4) 충주박물관

충원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충주박물관은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충주읍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6년 유물전시관으로 문을 열어 지역민들이 기증한 유물, 출토품 등을 모형물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1995년 시·군의 통합으로 충원향토민속사료전시관을 통합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관장(행정5급)과 일반직 6명, 전문직 2명이 있다. 박물관 총 예산은 5억원이며 2002년 유물구입비는 책정되지 않았다. 2002년 6월에 박물관 지붕(슬라브)을 기와로 개량하였다. 기획전시회는 충주지역출토유물, 고문서 등 1991년부터 지금까지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사회교육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매년 박물관전통문화학교(80명)를 실시하고 있다.

#### (5) 거창박물관

1989년 5월에 거창지역의 유물을 총체적으로 소개할 목적으로 ‘거창유물전시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했으며, ‘93년 4월 거창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건립의 기반이 된 유물은 최남식과 김태순씨가 평생을 두고 모은 자료들이다. ‘거창문화복지센터’의 관리소장이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이 없다. 박물관의 정규직원은 3명이며, 이중 전문직은 1명이다. 거창문화복지센터의 전체 예산은 1억 5천만원이며, 자료수집은 주로 기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 유물구입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는다.

#### (6) 안동민속박물관

안동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문화재를 이관하여 민속경관지 5만여 평을 조성하면서 안동지방의 유교 및 민속문화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 관장은 별정직 5급이고, 정규직은 27명이며, 이중 학예연구직은 4명이다. 연간 예산은 13억원이며, 이중에서 유물구입비는 5천만원이다(2002년). 사회교육은 ‘93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민속교실(연 1회, 4일간, 100명), ‘99년부터 (사)안동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의 안동문화연구반(월 1회, 80명), ‘97년부터 지역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통문화교실 등이 있다. ‘93년부터 7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매년 민속 및 유교유산과 관련된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 (7) 군립의령박물관

의령지방의 고고유물 등 역사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관장은 군청 기획실장(4급)이 겸직하고 있으며, 박물관 담당직원은 2명이며, 이중 1명이 전문직이다. 박물관의 인사 및 예산은 군립문화회관이 총괄 관리하며, 박물관에는 별도의 독립된 인사권 및 예산권이 없다. 2002년 기준 문화회관 예산은 3억원이며, 박물관은 이중 30%인 3천만원 내외이다. 예산부족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 (8)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은 밀양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수집·전시·보존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영남권에서 수집한 고고 및 서화자료를 주로 전시하고 있다. 당초 사명대사 유물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사명대사 유물전시관으로 1974년 문을 열었으나, 사찰측의 유물인도 거부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1993년초 밀양시립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밀양시립박물관은 건물의 협소 및 접근성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외곽으로 이전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연간예산은 8,000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없다.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하며 직원은 기능직 3명으로 학예연구직이 없어 기획전 및 사회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9) 창녕박물관

창녕의 지역문화를 연구홍보하고 선사부터 가야시대까지 창녕지역에서 출토된 고고유물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6년 창녕유물전시관으로 출발하여 1997년 창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박물관 전시실의 리모델링 작업을 계획중이다. 연간예산은 7천 4백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다. 직원은 관장(행정6급)과 일반직 1명, 전문직 1명 등 3명이다. 지금까지 ‘계성 계남리 북5호분 출토유물전’ 등 3회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사회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물은 국가귀속자료를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고 유물구입은 민속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0) 전주역사박물관

전북과 전주의 역사문화자료를 통해 전주가 갖는 역사 속에서의 시대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전주의 중심을 세우고 전주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개관하였다. 연간예산은 5억 1천 8백만원이며 유물구입비는 약 4,000만원이다. 박물관 운영은 민간위탁([사단법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으로 하여 직원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다. 직원은 관장(계약직 5급상당)을 포함 일반직 5명, 전문직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 ‘전주의 근대교육-학교’ 특별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고, 사회교육으로 제1기 ‘전주역사박물관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봄과 가을 2회의 역사기행 답사프로그램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지역종합박물관의 현황표

2002. 11. 현재(개관년도순)

| 번호 | 명 칭             | 설 립 자  | 관 장           | 직원수<br>(전문직) | 규 모(㎡)                  | 소장자료(점)           | 개관년<br>도 |
|----|-----------------|--------|---------------|--------------|-------------------------|-------------------|----------|
| 1  | 인천광역시립<br>박물관   | 인천광역시장 | 행정5급          | 19(6)        | 부지 9,753<br>연면적 2,692   | 도자기류<br>4,910     | 1946     |
| 2  | 부산박물관           | 부산광역시장 | 별정3급          | 60(20)       | 부지 56,334<br>연면적 7,797  | 고고류<br>21,000     | 1978     |
| 3  | 제주도민속<br>자연사박물관 | 제주도지사  | 별정4급          | 18(8)        | 부지 32,959<br>연면적 5,299  | 고고, 민속류<br>28,527 | 1984     |
| 4  | 충주박물관           | 충주시장   | 행정5급          | 6(2)         | 부지 7,318<br>연면적 1,373   | 청자, 토도류<br>4,270  | 1986     |
| 5  | 광주광역시립<br>민속박물관 | 광주광역시장 | 행정4급          | 20(8)        | 부지 72,665<br>연면적 4,216  | 민속류 등<br>9,852    | 1987     |
| 6  | 거창박물관           | 거창군수   | 행정5급<br>(겸직)  | 3(1)         | 부지 8,552<br>연면적 1,349   | 고고류 등<br>1,200    | 1989     |
| 7  | 대전광역시향토<br>사료관  | 대전광역시장 | 행정3급<br>(겸직)  | 5(2)         | 부지 3,324<br>연면적 1,071   | 민속류 11,800        | 1991     |
| 8  | 안동민속박물관         | 안동시장   | 별정5급          | 27(4)        | 부지 171,630<br>연면적 3,041 | 민속류<br>4,882      | 1992     |
| 9  | 강릉시오죽헌<br>시립박물관 | 강릉시장   | 학예연구관         | 15(4)        | 부지 17,263<br>연면적 2,209  | 민속류<br>3,100      | 1992     |
| 10 | 밀양시립박물관         | 밀양시장   | 행정5급<br>(겸직)  | 3(0)         | 부지 819<br>연면적 419       | 서화류<br>5,930      | 1993     |
| 11 | 군립의령박물관         | 의령군수   | 행정4급<br>(겸직)  | 2(1)         | 부지 3,250<br>연면적 739     | 민속류 549           | 1993     |
| 12 | 창녕박물관           | 창녕군수   | 행정6급          | 3(1)         | 부지 4,881<br>연면적 1,193   | 토도류, 철기<br>706    | 1996     |
| 13 |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지사  | 계약직<br>(1급상당) | 49(22)       | 부지 41,394<br>연면적 10,153 | 고고, 민속류<br>5,498  | 1996     |
| 14 | 여주군향토사료관        | 여주군수   | (학예연구사)       | 2(1)         | 부지 2,600<br>연면적 929     | 토기바리, 옹돌<br>734   | 1997     |
| 15 | 삼척시립박물관         | 삼척시장   | 행정5급<br>(겸직)  | 8(1)         | 부지 9,247<br>연면적 2,580   | 고고, 민속류<br>4,275  | 2000     |
| 16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특별시장 | 계약직<br>(3급상당) | 75(20)       | 부지 99,854<br>연면적 20,165 | 역사, 민속류<br>23,400 | 2002     |
| 17 | 전주역사박물관         | 전주시장   | 계약직<br>(5급상당) | 10(5)        | 부지 4,530<br>연면적 2,141   | 역사, 민속류<br>8,111  | 2002     |

### Ⅲ. 지역종합박물관의 과제

#### 1. 광역자치단체에서 규모 있는 종합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총 247개관이다.<sup>13)</sup>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은 총 35개관이며, 공립박물관 중에서도 종합박물관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은 모두 17개관이다.

이를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총16개 중에서 7곳(44%)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을 보면 7개 자치단체 중 5곳에서 종합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박물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박물관을 반드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광역단체에서 규모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건립 후의 수혜대상은 당연히 지역민들이 우선적일 것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민들의 통합, 나아가 지역의 홍보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자치단체들 중에서 대구에는 소규모의 향토사료관이 있고, 울산에서는 공업역사박물관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대전에는 소규모의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박물관으로의 확대 이전이 현안사업으로 되어있으며, 전남에서는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에게는 종합박물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아직 구비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에게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종합박물관의 건립을 바라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박물관을 만들 것인가. 고고, 역사, 미술, 민속, 자연사 등 여러 학문이 복합적으로 탐구되는 박물관이면 좋다. 또 지역의 특징을 살린 확실한 주제가 있다면 지역의 특징적 요소들을 통시대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일별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자. 광주는 흔히 예향, 의향 등으로 불리고 있고, 규모있는 박물관 2개(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가 병존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예향이나 의향을 나타내주는 전시실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전국으로 산일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광주민속박물관에서는 ‘광주역사관’의 건립을 현안문제로 안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박물관은 그 지역 역사와 문화적 요소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역별 특징을 살린 순수한 주제박물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아도 된다.

13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김정일 제공. 2002. 6. 30 현재 총 244개관(국립 25, 공립 32, 사립 103, 대학 84)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박물관 3개관을 합산한 숫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의 수는 192개로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까지 합한 수효이다.

## 2.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박물관의 조직을 보면 광역단체 박물관에서는 1곳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관장이 대표성을 띠고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단체 박물관은 60%(6/10)가 겸직 또는 조직이 없어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박물관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장의 직렬과 직급은 인사·재정·사업 등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확보, 박물관의 대외적 위상과 대표성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분석대상 17곳 가운데 학예연구직이 관장 1곳, 전문가 출신 관장(별정·계약직 포함) 7곳(41.2%), 행정직 관장 9곳, 관장 없음 1곳으로 나타났다. 국립박물관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학예연구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점과 비교해볼 때 아직도 과도기적인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계약직과 별정직 관장이 과연 전문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관장의 연구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박물관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전환, 장기간 관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또 계약·별정직 모두 신분보장이 확실치 않아 책임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된다. 행정직 공무원이 관장을 겸직하는 5곳은 대체로 박물관 규모가 작은 곳이어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최고 14년, 최소 9년에 이르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장직을 겸직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다.

현임 관장의 직렬 현황

|    | 계  | 전문직   |        | 행정직(독립) | 행정직(겸직) | 조직없음 |
|----|----|-------|--------|---------|---------|------|
|    |    | 학예연구직 | 별정·계약직 |         |         |      |
| 인원 | 17 | 1     | 6      | 4       | 5       | 1    |

직원의 수 역시 관장직과 함께 박물관 운영의 중요한 관건이다. 분석대상 박물관들은 그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운영주체에 따른 평균직원 수는 광역단체가 35.1명, 기초단체가 7.8명이다(전체평균은 19.0명). 대략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4.5배에 이른다. 이런 사정은 전문직 비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광역단체가 12.3명, 기초단체가 2명이다(전체평균은 6.2명).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중 전문직원이 1명뿐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6곳에 이른다. 사실상 1~2명으로는 유물관리 이상의 박물관 활동이 불가능함을 감안하면, 지역내 문화복지의 최일선에 서야 할 박물관의 책무를 포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박물관의 조직과 인력은 박물관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아무리 작은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관장은 연구능력과 행정력이 겸비되어야 하고, 학예연구직 또한 최소 3~4명은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특히 기초단체의 박물관이 발전하려면 우선 조직과 인력의 정비가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한다. 박물관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일은 모두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 3. 지역의 유물은 지역에서 수집 보관해야 한다.

유물이 없는 박물관은 생각할 수 없다. 유물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말해주는 증거물이다. 지역의 유물이 없다면 지역적 특질을 규명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다음 세대에서 연구하고자 하여도 제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유물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발굴, 기증, 수집,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리하고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박물관 중에서 4개관(광역시, 기초 3)을 제외하고는 액수에 차등이 있지만 유물구입비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단체 박물관은 관당 평균 734백만 원으로 외견상 많아 보이지만 기관끼리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기초단체 박물관은 예외적인 한 곳을 제외하고는 1~5천만원 수준이다.

유물은 이제 골동화되어 버렸고, 그 희귀성 때문에 고가에 매매되고 있다. 유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는 개보수할 때 전시품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며, 박물관의 불거리가 적어지는 등 박물관의 위상과도 직결되고 있다. 박물관마다의 적절한 액수 설정은 어렵겠지만 지역의 유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 박물관 유물구입비 확보 현황(2002)

|              | 서울역사  | 인천시립 | 대전향토 | 광주민속 | 부산시립 | 경기도   | 제주도립 |
|--------------|-------|------|------|------|------|-------|------|
| 금액(백만원)      | 3,000 | 100  | 0    | 20   | 500  | 1,500 | 20   |
| 유물구입/<br>총예산 | 23.9% | 7.6% | 0%   | 1.5% | 6.7% | 21.7% | 1.1% |

### 4. 일정기간 마다 전시실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물관은 그 시대의 문화수준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을 나타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박물관에서는 첨단기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쉽게 전시내용을 이해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시기마다 전시내용과 전시시설을 그 시기의 기술과 문화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새롭게 개보수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의 국립박물관들도 10년 정도의 주기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

다.<sup>14)</sup>

1990년 이전에 개관한 공립 종합박물관 6개를 살펴보자. 이 중에서 인천시립박물관은 1990년에 이전 개관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은 1978년 개관 후 22여 년만인 2000~2002에 걸쳐 전시실을 개보수하였다. 1984년 개관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내년(2003)에 소액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보면 공립박물관의 개보수 기간은 대략 20년으로 국립박물관 주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20년에 이르지 못한 충주박물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거창박물관 등은 개관 후 13~16년 동안 똑같은 전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유물보존 환경은 물론 관람환경을 적절히 조성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비추어짐으로써 관람객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개발사업보다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비중 낮게 생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 5. 박물관의 생활화를 이끌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박물관은 최고의 휴식처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높은 지식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잔재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박물관을 자주 접해보지 못한 생소함의 선입관념과 박물관의 구태의연한 시설과 활동내용이 복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현대의 박물관은 ‘문턱’을 더욱 낮추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더욱 많은 사람이 박물관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의 기본은 사회교육과 기획전시회 등을 자주 열어 문화향수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은 문화적 역량을 키우지만, 박물관으로서는 지역민들이 자주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현대 박물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사회교육은 바탕이 되는 기능이다.<sup>15)</sup>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소형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많이 실시하고 있는 편이지만 인력과 시설미비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사회교육은 지역민들에게 박물관 사회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이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획전시회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기도 하고, 역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상설전시실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볼거

14 1978년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2회(1989~1990년, 2001년)에 걸쳐 전면 또는 일부 개보수하였고, 1984년에 개관한 국립진주박물관은 1996~1998년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으로 개보수하는 등 일정기간마다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15 21세기를 향하는 박물관의 기능과 과제로 1)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2)문화재보호기관으로서의 박물관, 3)공공봉사기관·여가선용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을 들고 있다.(이난영, 「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박물관학보(博物館學報)』 1, 한국박물관학회, 1998. pp. 26~31)

리를 제공하고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현대 박물관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박물관에 따라 많게는 년 4~5회, 적게는 1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비용에 있어 선진 박물관과 그렇지 못한 박물관의 차이는 너무 심하다. 국내의 전시회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00만~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어느 광역단체 박물관은 연간 300만~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2~3회의 전시회를 해야한다고 하니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기초자치단체 박물관들은 규모있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시회 개최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박물관이 연구 교육 전시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시기에 맞는 축제의 개최, 대중적인 음악회나 연주회, 지역 최고의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의 구비, 박물관에서만 살 수 있는 문화상품을 구비한 뮤지엄 샵의 운영, 안락하고 편리한 휴게시설의 구비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 박물관들 중에는 서서히 한가지씩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박물관은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민들은 박물관을 찾고, 박물관은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리드해 갈 수도 있다. 이렇듯 박물관의 생활화를 전제로 박물관은 ‘21세기 핵심문화시설’이 되는 것이다.

## 6. 박물관도 문화산업적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박물관은 그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제1목표가 되는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시설의 미비, 운영방법의 미성숙, 안내요원의 부족 등으로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박물관에서 수익을 낸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거대하고 화려한 뮤지엄 샵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은 에펠탑 옆서를 비롯한 다양한 미술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판매하고, 대영박물관을 비롯한 영국의 박물관들은 ‘문화유산 이미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운영비에 보태기 위한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전쟁’시대에 박물관 활동의 증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다.

박물관은 지역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례로 지역박물관이 지역의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 예가 있다. 19세기 중엽, 유명한 흑림지대(黑林地代)를 배경으로 독일의 티티제(Titisee)에 건립된 시계박물관이 오늘날 이 고장을 전세계 빼꾸기 시계산업의 중심지로 바꾼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제 박물관은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차원을 넘어 문화산업적 자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V. 맺는 말

이상으로 지역 종합박물관의 현황과 현상적으로 나타난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공립박물관은 1980년대 건립의 불씨를 당겨 '90년대에 본격적인 건립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박물관 중요성의 인식과 아울러 국민소득의 향상을 바탕으로 박물관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박물관은 수적인 면에서 증가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박물관의 3대요소라고 하는 시설 인력 유물의 측면이나 운영의 측면을 박물관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의 국립박물관과 일부 대규모의 공립박물관들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규범을 보이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에 산재해있는 중소규모 박물관으로의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공립박물관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행정의 보수성과 이어온 관성으로 인해 아직도 박물관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 행정기관으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전시기능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박물관 활동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 공립박물관들도 그 숫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만큼 박물관학적인 입장에 충실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은 기능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예산 등 기초조건들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기능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지역문화와 박물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역민들의 결속과 대외적인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박물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하는 가운데 민족의 보편성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지역민들을 결속시키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또 문화 단체장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용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박물관들은 건립 후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들은 보다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 제 2 주제

# 지역 주제박물관의 건립현황과 과제

최 종 호(박물관학연구소 소장 /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겸임교수)

### <목 차>

- I. 지역사회와 주제박물관
- II. 주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현황
- III. 지역 주제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
- IV. 지역 주제박물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 I. 지역사회와 주제 박물관

‘지역사회’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일컫는다. 박물관과 박물관의 방문객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sup>16)</sup>는 박물관 반경 5마일 이내를 1)향토(local), 박물관에서 2시간 이내 여행거리를 2)지역(regional), 특정 나라 규모의 3)지방(national), 한 해 안에 여러 나라의 방문객이 찾는 4)국제(international) 수준의 4가지 범주로 박물관의 공동체(communitiy)를 분류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면 단위의 지역 기반을 향토, 시·군 단위의 지역 기반을 지역이라고 한다. 도 단위의 지역 기반을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흔히 2개 이상 도 단위의 광범위 지역을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전국에 광역시 도를 포함해서 2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은 중앙정부에 대한 상대적 용어이며, 지역과 지방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대한 변두리 또는 외곽이라는 의미로 지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지방(province)은 지역(region) 보다 큰 구역을 일컫는다. 특정 지역의 범주를 벗어난 광범위한 구역을 지방이라고 하는데,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범주는 교통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보통 사

16 1975년 부활절부터 9월말까지 휴가코스로 잘 이용되고 있는 영국의 지방 도시에 있는 우수한 박물관의 입장객을 분석할 결과, 향토에서 45%, 지역에서 22%, 지방에서 29% 그리고 국제적으로 4% 방문객이 집계되었다.

람이 걸어서 하루동안에 걸어 갈 수 있는 거리가 100리(40km) 내외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의 풍속과 관습은 대략 100리 이내는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고 한다. 요즘 같으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반경내의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된다.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교통수단과 도로, 철도, 해상, 항만, 공항 등의 교통여건에 따라 공동체의 범주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으로 1시간 내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고장’에 대한 단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 고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관할하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삶의 터전을 일컫는다. 지역,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thema museum)을 건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에 주제박물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지역을 고장과 동일한 범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시·군 단위의 자치행정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규정한다.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염원이자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증거물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과 생태환경 등을 기반으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복합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주제박물관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의 박물관이기는 하지만 개념중심(concept-oriented)의 박물관으로서 유형의 물질자료 보다 무형의 비물질 정보에 초점을 맞춰 특정 주제의 내용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표출함으로써 고객의 감성과 경험을 충족시켜 주는 복합공간이다. 주제박물관은 주제(thema)설정과 설립취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건립·운영될 수 있다. 주제설정에 따른 소재(matter)의 다양성과 구성물의 내용에 따라서 주제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서 또는 전문박물관(특수박물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은 특정 주제아래 박물관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정하여 이용자들이 찾아들게 하는 개념중심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박물관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1)종합박물관, 2)전문박물관 / 특수박물관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고, 공간에 따라 1)옥내, 2)야외, 3)가상현실 / 사이버, 4)복합형으로 건립·운영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1)국립, 2)공립, 3)사립, 4)대학, 5)법인 / 단체 등에 의해서 주제박물관이 설립되어 1)직영(사업소) 또는 위탁(법인/단체)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공동체 성원들의 공동관심사가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제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박물관의 설립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제 설정에서부터 자료수집과 보존 및 정보관리, 연구, 교류, 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확보와 시설물의 배치 및 관리, 인적·물적 교류와 콘텐츠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주제박물관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운영의 문제점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면서 중장기발전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박물관을 건립·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지선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구매거리 등이 주제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박물관의 규모와 성격, 기능 및 역할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주제박물관 상호간에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mission state)는 주제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의 필요성은 주민들을 위한 대사회교육 및 평생학습, 위락공간 제공 외에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원 보다 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및 생태환경을 매개로 아이디어를 형상화하여 고객이 흥미를 느끼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만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여 주제박물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모의 실행을 통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한다.

## II. 주제박물관의 건립과 운영현황

우리나라 2001년 1월 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1에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호·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2조 3에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2001년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보완 개정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ICOM Statutes)과

전문직원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 2001)에 “박물관은 공중에게 개방되고,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정의되어 있다.

부차적으로 “(i)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교류하는 자연과 고고학, 민족지의 기념물과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 성격의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지; (ii) 동·식물원과 수족관, 동식물사육장치처럼 동물과 식물의 수집품을 갖고 있고 살아 있는 표본을 전시하는 기관; (iii) 과학관과 천문관; (iv) 비영리의 미술 전시실(galleries); (v) 자연보존지역; (vi) 규정에 명시한 정의에 준하는 박물관에 책임을 진 국제, 국가, 지역 또는 지방 박물관 조직 및 부(ministries), 처(departments)의 공공기관; (vii) 박물관과 박물관학에 관련된 보존, 연구, 교육, 훈련, 정보관리,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의 기관과 조직; (viii) 유·무형의 유산 자원(살아 있는 유산과 디지털 창조적인 활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 운영을 도모하는 문화센터와 그 밖의 실체(entities); (ix)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박물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갖고 있거나 또는 박물관학적인 연구,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서 박물관과 박물관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행위원회 같은 그 밖의 기관”을 박물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http://icom.museum/statutes.html>)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박물관 정의와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 사이에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에 “공중에게 개방되고”,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교류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의 박물관 정의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정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와 국제박물관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박물관협회에서는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증거물로서 학예·기술적으로 ‘중요한 것’(importance)을 박물관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는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value)을 박물관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상호 평등 교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박물관자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교육적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나라의 의무교육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고,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과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박물관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박물관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박물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박물관이란 호칭을 갖고 있지 않는 박물관성격의 박물관이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갖고 있는 ‘박물관’(museum)과 박물관사업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준박물관’(quasi-museum), ‘유사박물관’(para-museum) 등이 있다.

실제로 준박물관은 고고학적인 현장과, 역사적인 기념물, 민족지 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동식물사육장, 과학관, 천문관, 보존과학 기관, 미술관, 기록보존소, 자연보존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박물관은 박물관 같은(museum-like), 박물관과 관련된(museum-related)기관으로서 과학관, 유산관, 문화관 등의 형태로 존재함으로 준박물관과 매우 밀접하다. ‘박물관 같은’, ‘박물관과 관련된 기관이나 장소 가운데 동·식물원이나 수족관, 천문관, 기록보존소, 자연보존지역, 공원, 농원 등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인정하는 넓은 의미의 박물관 정의 속에 포함된다.

기존의 박물관이 실물(originals)과 운영자 중심의 직관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주제박물관은 자원(resources)과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물관학이 발달하기 이전, 과거에는 물품/작품중심(object-oriented)의 박물관 전시가 중심이었으나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이 발달한 이후로 내용중심(content-oriented)의 박물관 표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선진 고고 / 역사(미술사) / 민속박물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주제박물관의 건립·운영의 성공은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주제설정과 체계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한 후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점단의 기법을 활용하여 표출함으로써 목표고객(target client)의 흥미를 끌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주제박물관의 옥내, 야외, 가상현실/사이버 공간에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박물관에 입장하여 오감을 통해서 체험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 자원을 다양한 형식과 경로를 통해서 이미지와 메시지, 소리, 빛, 맛, 느낌, 현상, 원리, 사실, 사물, 동식물, 생태, 환경 등을 DB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박물관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박물관은 자의(字意) 그대로 개념중심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의 박물관을 한번 다녀갔던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의 새로운 품목(메뉴)을 찾지 못하면 주제박물관의 활동과 고객서비스에 실망할 것이다. 실망이 누적되면 주제박물관을 다시 찾는 재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지역 주제박물관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품목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레파토리를 시리즈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기획 이벤트 부서의 인력과 장비,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구 개발 기획 이벤트 부서는 지역 주제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목표고객을 다원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객이 오감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야 주제박물관은 지탱될 수 있고, 주제박물관의 목표고객은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고객확보와 관리를 위한 판촉활동(market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주제박물관은 반드시 박물관학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박물관경영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경영을 위탁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박물관 전문인력이 박물관의 건립·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제박물관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내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지역 주제박물관과 주변의 문화예술공간을 연계망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주제박물관은 고객이 흥미와 위락, 학습의 3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희망하는 형태의 주제박물관을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주제박물관의 설립자와 운영자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공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기획단계의 프로젝트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물관 자원은 유무형의 문화유산(기록유산과 생활양식 포함)과 자연유산으로 대별해 볼 수 있지만, 자료와 정보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박물관의 자원은 구비(언어) 전승적 요소, 행위(의례) 전승적 요소, 물질 전승적 요소를 3대별해 볼 수 있지만, 자료 측면에서는 사물이 있고, 정보측면에서는 사실, 현상, 원리, 이미지, 소리, 냄새, 맛, 느낌, 생태, 환경 등이 있다. 주제박물관에서 설립·운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한 박물관 자원을 고객이 오감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 관광유형을 1) 산/사찰 2)계곡/폭포 3)스키장 4)바다/강/해수욕장 5) 문화유적지 6)박물관/미술관 7)유원지/관광지/공원 8)저수지/호수/늪지 9)자연휴양림 10)온천 11)관광농원을 포함해서 11개 분야로 나누었고, 박물관/미술관 분야에 1. 경기도 박물관 2. 광릉수목원(산림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농경유물관 5. 덕포진교육박물관 6. 두물위크샵 7. 마사박물관 8. 모란미술관 9. 목아불교박물관 10. 목암미술관 11. 몽골문화촌 12. 서울종합촬영소 13. 세종옛돌박물관 14. 소전미술관 15.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16.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17. 여주 잠사 민속박물관 18. 이천 세계도자센터 19.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0. 중남미문화원 21. 철도박물관 22. 토지박물관 23. 토탈야외미술관 24. 한국등잔박물관 25. 한국미술관 26. 한국민속박물관(한국민속촌내) 27. 한택식물원 28. 해강도자기미술관 29. 현대 도자 미술관 30. 호암미술관을 포함해서 경기도지정 테마박물관이 30개관 등록되어 있다.(2002년 1월 현재)

반면에 충남도의 경우에 충남관광·여행을 1)국가지정문화재 2)도지정문화재 3)박물관·전시·기념관 4)문화유적지를 포함해서 4개 분야로 나누었고, 박물관·전시·기념관 분야에 1)국립박물관 2)대학박물관 3)민속박물관 4)특수박물관 5) 기념관 6)전시관 7)미술·조각관 8)문화진수회관을 포함해서 28개관이 등록되어 있다. 박물관·전시·기념관 분야의 28개관 가운데 잠재하는 테마박물관은 23개관이 있다. (2002년 1월 현재) 안타깝게도 충남넷의 충남관광·여행 / 테마별 청풍명월 여행 속에 1)볼거리 2)먹거리 3)즐길거리

4)관광열차여행 5)특산품을 포함해서 5개 분야로 나누었지만 문화예술기반시설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다.

경기도의 경우에 테마유형을 1)호반관광권; 팔당호를 끼고 도는 드라이브코스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남양주, 양평등지의 명산 및 계곡 2) 풍치관광권;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관광지 및 심산계곡과 명산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휴식처 3) 문화관광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숨쉬고 있는 고장으로서 화성, 민속촌등의 관광지와 전통예절 및 민속행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 4) 안보관광권; 21C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여건 조성 및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포함해서 4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테마유형 문화관광권역에 1. 강변랜드 2. 건원릉 3. 경기도박물관 4. 고달사지 5. 과천경마장 6. 광주조선백자도요지 7. 국립현대미술관 8. 켈리사 9. 김포조각공원 10. 남한산성-장경사 11. 남한산성도립공원 12. 너리굴 문화마을 13. 농경유물관 14. 다산유적지 15. 대농리 석불입상 16. 덕포진 17. 도라전망대 18. 독산성세마대지 19. 동구릉 20. 두물위크샵 21. 마린월드 22. 마사박물관 23. 망배단 24. 명성황후생가 기념관 25. 모란미술관 26. 목아불교박물관 27. 목암미술관 28. 몽골문화촌 29. 문수산성 30. 미리내성지 31. 미사리 선사유적지 32. 민박 농사체험장 33. 밀성관광농원 34. 봉선사 35. 서오릉 36. 서울대공원 37. 서울랜드 38. 서울종합촬영소 39. 서전농원 40. 세종대왕릉 41. 세종옛돌박물관 42. 소전미술관 43.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44. 쌍미륵과 궁예미륵 45. 아양동 미륵 46. 안성문화마을 47. 안성성당(구포동) 48. 안성천문대 49. 에버랜드 50.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51. 여주 잠사민속박물관 52. 여주도예촌 53. 영월루 공원 54. 와우정사 55. 용미리석불입상 56. 용주사 57. 유엔군초전기념비 58. 윤관장군묘 59. 율곡선생묘 60. 용릉·건릉 61. 이천 세계도자센터 62. 이천도예촌 63. 임진각관광지 64. 자운서원 65.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66. 죽산성지(이진터 순교지) 67. 죽주산성 68. 중남미문화원 69. 천마산스키장 70. 철도박물관 71. 충현서원지 72. 태평미륵 73. 토지박물관 74. 토탈야의미술관 75. 통일공원 76. 파사성지(婆娑城址) 77. 한국등잔박물관 78. 한국미술관 79. 한국민속박물관(한국민속촌내) 80. 한국민속촌 81. 해강도자기미술관 82. 행주산성 83. 현대 도자 미술관 84. 호암미술관 85. 화석정 86. 효종대왕릉(영릉)을 포함해서 총 86개소의 테마박물관이 소개되어 있다.

상기한 테마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인증하는 박물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박물관이지만 박물관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 않은 테마박물관은 우리나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박미진흥법)의 박물관 등록규정에 어긋나는 소장품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제박물관을 등록하려는 관점에서 박미진흥법은 반드시 보완을 전제로 개정되어야 한다.

주제박물관의 설립·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한 <충

남지방에 잠재하는 지역 테마박물관>을 박물관 군락(museum cluster)으로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박물관 사업을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과 백제마을 복원사업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제박물관 건립·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충남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문화관광부 2002. 1. 10

| 시·도 | 보조금<br>시설명    | 사<br>기<br>업<br>간 | 총 사 업 비 |        |         | 지 원 예 산 |     |     |     |     |     |      |
|-----|---------------|------------------|---------|--------|---------|---------|-----|-----|-----|-----|-----|------|
|     |               |                  | 계       | 국<br>고 | 지방<br>비 | 계       | '96 | '97 | '98 | '99 | '00 | '01  |
| 충남  | 고남패총박물관(태안군)  | '97~'01          | 19      | 5      | 15      | 5       |     |     | 5   |     |     |      |
|     | 외암민속박물관(온양시)  | '98~'02          | 55      | 16.5   | 38.5    | 11.5    |     |     |     | 5   |     | 6.5  |
|     | 윤봉길의사기념관(예산군) | '99~'01          | 40      | 12     | 28      | 10      |     |     |     | 10  |     |      |
|     | 향토박물관(논산시)    | '00~'03          | 47      | 14     | 33      | 7       |     |     |     |     | 7   |      |
|     | 천안박물관         | '00~'03          | 150     | 45     | 105     | 5       |     |     |     |     |     | 5    |
|     | 소 계(5관)       |                  |         |        |         | 38.5    |     |     | 5   | 15  | 7   | 11.5 |

경기도의 경우에 2001년 3월 26일부터 5월 4일 2002년 3월18일부터 4월12일 까지 9개 지역 12개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58명의 문화 유산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퇴직교원, 향토사학가, 지역문화원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춘 도민 가운데 선발하여 수도권의 관광학과 교수, 향토사학가,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유산답사 전문가 등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역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광지 해설기법, 관광객 심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서비스 마인드 등의 소양교육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별 특강을 통해서 현장답사 및 해설실습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론시험과 해설실기시험 등의 수료시험을 실시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문화유산해설사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지역 주제박물관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여 장차 지역 주제박물관의 안내요원으로 배치하여 지역 주제박물관의 건립·운영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제박물관의 목표고객(target client)은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체험을 통해 배우고, 박물관운영자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주된 관심은 지식습득 보다 체험과 감성충족에 집중되어 있다. 주제박물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지역 주제박물관을 방문하면 박물관운영자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들과 함께 어울려 체험을 통해서 학습과 위락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박물관의 대사회 교육활동은 고객의 교육수준과 연령, 직업, 취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주제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아래 박물관 설립·운영자가 박물관 고객을 위한 유·무형자료의 표출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동안 비정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문화·예술·사회·교육·후생·후생·복지 등의 복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박물관자료와 정보를 직관(直觀)을 통해서 실물을 보여 주는 전시공간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박물관에서는 유형의 물질자료 뿐만 아니라 무형의 비물질 정보를 오감(五感)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인간의 뇌가 이성과 감성 그리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석(interpretation; 연구, 전시, 교육을 포함)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전시물의 표출(presentation)과 전시물을 통한 교류(communication)의 방식이 새로운 연계망(network)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에는 박물관자료의 표출과 교류는 옥내공간 또는 야외공간이 전부였지만 이제 시대는 온라인(on-line) 또는 오프라인(off-line)상의 가상현실공간에서 박물관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정보를 표출하고 쌍방향 교류를 함으로써 박물관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2차원의 평면 문서와 단순한 정태(靜態) 이미지에서 3차원의 입체 텍스트(text)와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상현실공간에서도 표출하고 교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 가운데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 수 있는 공간이 박물관이다. 지역 주제박물관은 지역문화·예술의 보고(寶庫)이자 표출장소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이어야 한다.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및 지역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복리후생의 증진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박물관은 지역문화와 예술의 표출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단체장들은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시설물 등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박물관에서 화두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로서 지역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증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박물관, 특히 주제가 분명한 지역의 전문박물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문경시의 경우에 문경새재박물관과 문경석탄박물관, KBS-TV 드라마 세트장, 문경온천 등을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는 테마로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을 군락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경새재박물관은 새재 관문을 주제로 문경새재 지역의 역사와 전통적인 생활양식, 문화유산, 자연생태 등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방문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새재의 과객이 되어 보고, 산골 주민이 되어 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경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끌고 있다.

문경석탄박물관은 문경지역의 석탄을 주제로 문경탄광의 역사와 일련의 채탄작업과정을 방문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광부들의 삶과 탄광의 작업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선조들의 삶을 되새겨 볼 수 있고,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문경의 KBS-TV의 드라마 세트장은 <태조 왕건>이라는 시대극의 대하드라마를 통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과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함으로써 왕건 드라마 매니아들을 2001년 한해 동안 약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문경으로 끌어들이며 문경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문경온천단지는 문경시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산재하는 각종 수련원 방문객들을 온천단지로 유도하여 문경지역의 관광휴양산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문경의 경우에 새재박물관과 석탄박물관은 문경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였고, 드라마 세트장은 부지를 문경시에서 제공하였고, 온천단지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광휴양산업과 박물관 군락을 연계한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박물관은 서울지향이기 보다는 향토지향이어야 박물관의 대사회 교육활동이 돋보여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 지역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향구적인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박물관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그 기능과 역할 및 운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III. 지역 주제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증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역박물관 설립은 1910년 결성된 경주 주민들의 애향 모임인 경주신라회가 1913년 신라고적보존회로 개칭하고 옛 객사를 전시관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sup>17)</sup> 백제의 옛땅 부여에서 1929년 부여고적보존회가 발족하면서 옛부여현의 객사인 백제관(百濟館)을 유물전시관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으로 편입되었고, 1945년 이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분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초기의 지역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재보존운동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17 그 후 신라고적회 전시관은 1926년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편입되었고, 1945년 이후부터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화재보존운동은 지역박물관 발족의 토대가 되었다.

지역사회를 위한 주제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개방되고, 비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전수, 학습과 위락을 위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환경과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종합박물관 보다는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하려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박물관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국립박물관도 전문영역별로 분관하거나 분야별로 나누어 독립적인 박물관 건물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박물관의 전문영역을 보다 깊이 있고 폭 넓게 다루겠다는 박물관 자체의지와 박물관자료의 안전관리와 과학적인 보존차원에서 학술적인 검증을 거친 후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중소규모의 지역박물관을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하기에는 전문인력이나 재정지원이 빈약하고, 전문박물관을 건립하기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쉽게 건립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지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실제로 소규모의 전문박물관 건립을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허술한 종합박물관보다 알찬 전문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사회, 교육, 후생, 복지 등의 지역 박물관활동에 유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운동과 생태환경 보존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박물관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처리문제와 산업공해문제, 자연재해문제, 생태환경의 보존과 정보·통신에 관한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우이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 인근에 있는 히라쓰카 시립박물관의 경우 이미 박물관의 종사자들과 박물관이용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박물관의 사회교육을 통하여 환경보호운동을 벌이고 환경파괴의 문제점 등을 진지하게 현장에서 논의하고 생태환경 보존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이 지역에서 수집했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견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현실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어느 박물관이 현실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보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문제이며 특히 박물관종사자들이 깨우쳐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박물관은 단지 옛 것만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일본 오오사카의 인권박물관의 경우 인권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박물관종사자와

박물관이용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인권의 소중함과 인권유린의 폐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해석하고 인권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총독부 식민 통치아래서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유린과 폐해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인권박물관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은 박물관과 박물관 사이의 연계망조직이 활성화되고, 정보교류 및 인적·물적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그 박물관의 한국실에 들어 갔을 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본 것은 짐을 운반하는 지게를 벽체에 기대 세우고 그 아래에 제사에 필요한 각종 제기를 진설하여 한국인의 의례생활의 일면과 생업도구의 일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문화적 맥락에 어긋나는 전시였다. 일본인 박물관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게가 갖는 의미와 용도 및 제례의 엄숙함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을 짚을 수 있었다면, 문화적 문법에 어긋나는 전시를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물관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남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관심은 순수할 지 모르지만 현대는 정보사회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웃을 알기 위해 나아가 세계를 알기 위해 지구촌이고 저곳을 조사·연구하여 그들의 문화와 생태환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개선과 이해증진에 한 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다. 손자의 병법에 나오는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우면 백번 이긴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란 글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리 대비하면 환란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1996년 8월에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청라 2구에 작은 향토박물관이 하나 생겼다. 이름하여 연기향토사료관, 이 박물관은 향토사학자 임영수씨에 의해 향토박물관으로 설립·개관되었다. 이 박물관의 특색은 정말 순수하게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향토박물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공동체박물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공동체 성원들의 합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기향토사료관은 박물관 운영과 관리면에서 기존의 사립박물관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자료의 수집은 임영수씨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그의 수집품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예술을 대변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 모두가 박물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향토박물관에서 전통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아무런 무리 없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박물관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IV. 지역 주제박물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사회의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의지와 요구, 기대효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박물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지역박물관은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재정과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박물관이 설립·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주제박물관은 지역사회의 공동소유로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조사, 관찰, 수집, 발굴, 보존, 기록, 연구, 전시, 교류, 교육을 하는 문화예술·생태환경의 복합공간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주제박물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비정규적인 교육활동과 문화예술 및 생태환경에 관한 현장체험 학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제박물관은 방문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객은 누구나 자료와 정보, 시설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제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편안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제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의 문화마을 만들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흥재(2002.11.02)에 의하면 문화마을 만들기 성공 요인은 첫째,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이미지가 형성되고, 사업 아이디어가 발생되며, 참여자가 탄생하게 된다. 둘째, 독창성이다. 마을 만들기는 독창성이 생명이다. 셋째, 종합적 진행이다. 하나의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발적 추진이 특징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frame.htm?num=1881>)

지역 주제박물관을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작업을 통해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문화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을 재평가하여 지역사회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기업으로 말하면 감가상각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다음 단계로는 그 지역사회의 주제 / 이슈를 찾는 작업이다. 이것은 모든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지향성 주제 / 이슈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주제 / 이슈가 정해지면 주제 / 이슈를 실현하기 위해 총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황태규(2002, 08.01.)에 의하면 종합테마도시 개발계획 사례인 전라북도 진안군의 ‘건

강진안계획’을 보면, 주민이 건강한 도시, 건강문화의 도시, 건강산업의 도시라는 세 가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하는 시티 마케팅(city marketing)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정에는 허준 동상이 세워지고,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는 ‘재미있는 약초 이야기’라는 과목을 만들어 약초를 키우는 할아버지가 와서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어느 도시보다 건강에 대해 많이 알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한다. 또 전통의학박물관을 유치하고 민간요법에 관한 세미나를 유치하는 등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건강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단순한 농공단지의 명칭을 건강산업단지로 바꾸어 건강산업체를 유치하여 건강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의 건강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종합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안지원본부라는 행정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공무원의 연수나 출장도 건강 관련 도시, 즉 중남미나 동유럽의 세계장수촌을 방문한다거나 건강산업단지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healthgoal(건강고을)이라는 도메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건강 관련 사이트와 연합하여 건강 관련 문화와 산업의 사이버 중심지를 구축한다는 그랜드 플랜을 담고 있다. 결국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러한 주제의 실현을 통해 전체가 건강이라는 테마로 통합된 도시를 만든다는 플랜이다.

지역 주제박물관을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제를 선택하되 유행을 쫓아서는 안된다. 지역 차별화 전략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작은 것부터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제는 선점해서 남보다 빨리 법적인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강릉시와 장성군의 홍길동 브랜드 선점 경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주변지역과 통합 마케팅 전략을 짜서 공동작업을 하는 것도 좋다. 무주·진안·장수를 무진장으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통합하여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곳도 효율적이다. 새로운 일을 자꾸 펼치기 보다 하나의 주제로 연계고리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htm?hosu=130&page=1>)

지역 주제박물관을 튼실하게 건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실행을 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주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교류와 자료교환을 통해서 지역 주제박물관은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난영, 2001, 『박물관학입문』 서울 삼화출판사, 88쪽
- 이흥재, 2002, 「일본과 영국의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 『문화도시문화복지』, vol 135  
호 2002.11.01
- 최종호, 2002, 『한국의 미술문화사 논총』 서울, 학연문화사, 669~691쪽
- 최종호, 2000, 『박물관실무지침』, 서울, (사)한국박물관협회
- 최종호, 1996,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 황태규, 2002, 「21세기 지역 발전과 시티문화마케팅」 『문화도시문화복지』, vol 130  
호 2002.08.01
- Choe, Jong Ho, 1997, The Community Museum Movement in Japan and Korea, *Community Museums in Asia*, Tokyo, The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56-69
- Hudson, Kenneth, 1977, *Museums for the 1980s*, Paris: UNESCO
- Karp, Ivan, et al., eds., 1992, *Museums and Communities*,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 [http://www.kg21.net/common\\_frame.jsp](http://www.kg21.net/common_frame.jsp)
- <http://tour.mg21.go.kr/>
- [http://www.chungnam.net/02/main.jsp?inc=02\\_01\\_03\\_01](http://www.chungnam.net/02/main.jsp?inc=02_01_03_01)
- <http://icom.museum/statutes>.
-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frame.htm?num=1881>
- <http://www.kcpi.or.kr/front/magazine01.htm?hosu=130&page=1>

## 【부 록 : 충남지방에 잠재하는 지역 주제박물관】

### 다정하고 친근한 명산

가야산 계룡산 광덕산 대둔산 덕숭산 백암산 봉수산  
서대산 오서산 용봉산 진악산 칠갑산 태조산 팔봉산

### 깨끗한 계곡

갑사계곡 강당골 거전계곡 동상골 동학사계곡 마점계곡  
명대계곡 무릉리계곡 성거계곡 수락계곡 용현계곡 유왕골 계곡  
작천계곡 화장골계곡

### 시원한 폭포

보석사12폭포 선녀폭포 용문폭포 은선폭포

### 도성 / 산성 / 성곽

공산성 노성산성 부소산성 서천읍성 성홍산성 운주산성  
위례산성 임존산성 해미읍성 홍주성

### 유서깊은 사찰

갑사 개심사 개태사 고란사 관촉사 광덕사  
동학사 마곡사 무량사 수덕사 쌍계사 장곡사

### 서원/향교

|      |      |      |      |      |      |
|------|------|------|------|------|------|
| 결성향교 | 공주향교 | 금곡서원 | 금산향교 | 남포향교 | 노성향교 |
| 당진향교 | 대흥향교 | 덕산향교 | 면천향교 | 목천향교 | 문헌서원 |
| 보령향교 | 부여향교 | 비인향교 | 서산향교 | 서천향교 | 석성향교 |
| 성암서원 | 송곡서원 | 신창향교 | 아산향교 | 연기향교 | 연산향교 |
| 예산향교 | 온양향교 | 용강서원 | 은진향교 | 임천향교 | 전의향교 |
| 정산향교 | 죽림서원 | 직산향교 | 진산향교 | 창강서원 | 천안향교 |
| 청양향교 | 충현서원 | 태안향교 | 한산향교 | 해미향교 | 행림서원 |
| 홍산향교 | 홍주향교 | 화암서원 | 효암서원 |      |      |

## 고분/의사총/선돌

능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쌍북리      북요지      정암리 와요지      칠백의총  
홍주의사총

## 신비로운 동굴

박쥐굴      수곡동굴      장수굴      지남철동굴      천수동굴      황금산동굴

## 싱그러운 자연 휴양림

금강휴양림      남이휴양림      만수산휴양림      성주산휴양림      안면도휴양림  
영인산휴양림      용봉산휴양림      진산휴양림      칠갑산휴양림      태학산자연휴양림  
회리산자연휴양림

## 금강 물길 따라 삼백리

강경포구      고란사      곶나루      금강발원지      금강하구둑      낙화암  
대청호      창벽

## 낭만과 추억의 해수욕장

갈목 해수욕장      구름포 해수욕장      꽃지 해수욕장      달산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두여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      몽산포 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바람아래 해수욕장      밧개 해수욕장      방주골 해수욕장  
방포 해수욕장      백사장 해수욕장      벌천포 해수욕장      사목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샛별 해수욕장      신두리 해수욕장      아치내 해수욕장  
안면 해수욕장      어은돌 해수욕장      연포 해수욕장      용두 해수욕장  
음포 해수욕장      장돌 해수욕장      천리포 해수욕장      청포대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통개 해수욕장      파도리 해수욕장      학암포 해수욕장  
홀미 해수욕장

## 작고 호젓한 섬

가의도      거아도      격렬비열도      고대도      고파도      궁시도      난지도  
내파수도      다보도      마도      병풍도      삼시도      석태도      외연도      웅도  
원산도      장고도      정족도      추도      호도      황도      효자도

## 해변가 절경

모감주나무군락 사자바위 천리포수목원 할미/할아비바위

## 해돋이/해넘이

마량리 해돋이마을 왜목마을 할미 / 할아비바위

## 푸짐한 서해 해산물

남당리 새조개 보령 굴밥, 굴구이 서천 꽃게장 안면도 대하구이  
왕산포 밀국낙지탕 장고항 실치회 장항 아구찜 천리포 갯개미 무침 .  
태안 바다장어 통구

## 얼큰한 민물요리

공주 장어구이 금산 제원 도리뱅뱅 .... 금산 제원 어죽 논산 황복탕  
부여 메기매운탕 부여 위어회 예산 봉어찜

## 갯칠 손맛이 나는 물음식

병천 순대 연기 한방오리백숙 연산 오골계 예산 산채정식  
예산 소복갈비 청양 구기자 갈비전 ....

## 향기 그윽한 민속주

계룡 백일주 금산 인삼주 논산 가야곡왕주  
논산 사과주 논산 알로에장수주 당진 면천두견주  
서천 한산소곡주 아산 연엽주 청양구기자주

## 지역향토축제

금산 인삼축제 논산 딸기축제 당진 상록문화제 백제문화제  
보령 머드축제 부여 수박축제 서천 모시문화제 서천 전어축제  
연기 도원문화제 예산 매현문화제 온양 문화제 천안 삼거리문화제  
천안 아우내봉화제 청양 칠갑문화제 태안 대하축제 홍성 만해제

## 흥겨운 민속놀이

공주 장승제 금산 물페기 금산 총각대방놀이 논산 백중놀이  
당진 기지시 줄다리 .... 당진 안섬풍어당굿놀이 .... 보령 등바루놀이

부여 호상놀이    서산 굴부르기제    서산 벚가릿대놀이    서천 저산팔읍길쌈놀이  
연기 강다리기    예산 보부상놀이    천안 거북놀이    청양 동화제  
청양 산신제    태안 황도붕어풍기놀이 ....    홍성 용대기놀이

### 신나는 바다낚시

국화도    그누굴    매박섬    무창포    삼시도    신진도리    장안  
파도리    호도

### 물반 고기반 민물낚시터

갑사저수지    고북저수지    고북저수지    마정저수지    먼천저수지  
반산저수지    봉재저수지    삼봉저수지    삼교저수지    송악저수지  
수룡저수지    신원사저수지    신창저수지    업성저수지    예당저수지  
오봉저수지    인평저수지    전대리지저수지    천장저수지    청라저수지  
탐정저수지    풍전저수지    홍양저수지

### 골프

대둔산컨트리클럽    도고컨트리클럽    우정힐스    천안상록리조트  
프레야충남

### 패러글라이딩

보령옥마산    천안흑성산

### 갯마을 체험

당진 왜목마을    당진 한진포구    무창포 모세의기적    서산 벌말

### 도자기체험

계룡산도예촌    부여 백제요

### 철새 도래지 탐방

백로서식지    부남, 간월호    삼교호  
아산호    왕암지    금강하구둑

## 수목 군락지 탐방

동백나무군락    모감주나무군락    벚꽃군락  
상록수군락    천리포수목원    해당화군락  
해송군락

## 건강온천 · 해수탕

덕산온천    도고온천    마곡온천  
아산온천    안면도 해수탕    온양온천  
홍성온천

## 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 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 천연기념물

금산보석사의 은행나무 ...    난도 팽이갈매기번식 ....    당진송산면의 회화나무....  
마량리 동백나무숲    부여내산면의 은행나무 ....    서천신송리의 곰솔  
안면도의 모감주나무 ....    연기봉산동의 향나무    연산화악리의 오골계  
예산의 백송    외연도의 상록수림    천안광덕사의 호도나무 ....  
천안성환의 향나무    행정은행나무

## 중요 무형 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면천두견주    바디장    은산별신제    한산모시짜기

## 중요민속자료

남은들상여    남이홍장군유품    보부상 유품    부여민칠식가옥  
부여정계채가옥    서산김기현가옥    서천이하복가옥    아산건재고택  
아산성준경가옥    아산외암리참판댁    아산외암마을    예산정동호가옥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윤증가의 유품    윤증선생고택    전박신용장군의대  
전세맹고불유물    정충신장군유품    홍성엄찬고택    홍성조웅식가옥

## 지방무형문화재

결성농요 계룡백일주 공주봉현리상여소리 공주탄천장승제 금산농바우끄시기  
금산물떼기농요 금산인삼백주 내지리단잡기 내포제시조 보령남포벼루제작  
부여용정리상여소리 산유화가 서산박찜지놀이 서천대목장 서천부채장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세도두레풍장 소목장 승무 아산연엽주 연산백중놀이  
지승제조 청양구기자주 청양정산동화제 태안설위설경  
한산세모시짜기 한산소곡주 홍성댕댕이장 황도붕기풍어제

## 국립박물관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 대학박물관

건양대박물관 공주교대박물관 공주대박물관 호서대박물관

## 민속박물관

공주민속극박물관 연기향토사료관 온양민속박물관

## 특수 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산림박물관 한국건축박물관

## 기념관

독립기념관 백야기념관 안전기념관

## 전시관

금산인삼종합전시관 남이홍장군유물관 복권전시관  
예산보부상유품전시관 이상재선생유물관 충무공유물전시관

## 미술·조각관

당림미술관 임림미술관

## 문화전수회관

결성농요전수회관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안섬풍어당굿보존회관 은산별신보존회관

## 충청남도 지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오 석 민(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I. 서 론
- II. 충청남도 지역박물관 현황
- III.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 IV. 결론에 대신하여

### I. 서론

이제 문화는 산업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생산부문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만화, 음악 등의 분야에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되고 있다.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민족고유’ 또는 ‘전통의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예산을 무작정 투자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박물관이라 하여 빗겨갈 수는 없다. 사라진 과거의 유산을 붙들고,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는 생존전략은 머지 않아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관 부문에서 파급효과를 낳아야 생존이 보장될 수도 있다.

특성을 살린 전문 박물관의 출현, 그리고 이벤트를 동반한 특별전의 개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현재까지 주류가 아니며, 더욱이 지역사회에서는 미미하기만 한 듯하다.

물론 박물관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설립된 박물관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관심을 유인할 수 있고, 나아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글이 될 것이다.

## II. 충청남도 지역 박물관 현황

2002년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립박물관 5개소, 공립박물관 1개소, 대학박물관 4개소, 그리고 10개소의 사립박물관이 등록되어 있다. (아래 표 1. 참조) 여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료관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2002년 현재 향토사료관 가운데 등록된 경우는 청양군 뿐이다. 우선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충청남도 등록 박물관 현황>

| 구분 | 박물관명     | 소재지        | 소장유물                      | 개관년월      | 건평       |
|----|----------|------------|---------------------------|-----------|----------|
| 국립 | 현충사유물관   | 아산 염치 백암리  | 이순신장군 유물 144점             | 1960. 4.  | 전시실 558㎡ |
|    | 국립부여박물관  | 부여 부여 동남리  | 백제 유물 등 8,764점            | 1971. 9.  | 680평     |
|    | 국립공주박물관  | 공주 중동      | 무령왕릉 출토유물 등 9,206점        | 1973. 10. | 1,915㎡   |
|    | 칠백의충기념관  | 금산 금성 의총리  | 유물 159점, 영정 1점, 기록화 7점    | 1976. 9.  | 전시실 184㎡ |
|    | 독립기념관    | 천안 목천면 남화리 | 68,297점                   | 1987. 8.  | 54,672㎡  |
| 공립 | 보령석탄박물관  | 보령 성주면 개화리 | 석탄·광산 자료 등 2,500점         | 1995. 5.  | 1,600㎡   |
| 대학 | 공주교대박물관  | 공주 봉황동     | 역사, 고고, 미술, 공예, 민속 등 863점 | 1975. 5.  | 293㎡     |
|    | 호서대박물관   | 아산 배방면 세출리 | 역사, 민속 등 273점             | 1995. 3.  | 200㎡     |
|    | 건양대박물관   | 논산 내동      | 통신장비, 관련 서적 등 2,685점      | 1996. 4.  | 224㎡     |
|    | 공주대박물관   | 공주 신관동     | 백제 유물 등 10,595점           | 2001. 1.  | 904.3㎡   |
| 사립 | 온양민속박물관  | 아산 권곡동     | 등록자료 410점, 미등록 20,000점    | 1978. 10. | 5,321㎡   |
|    | 연기향토사료관  | 연기 서면 청라리  | 민속품 등 1,425점              | 1996. 8.  | 217㎡     |
|    | 공주민속극박물관 | 공주 의당면 청룡리 | 민속극 자료 2,930점             | 1996. 11. | 500㎡     |
|    | 북권박물관    | 천안 안서동     | 북권 관련 자료 1,932점           | 1997. 6.  | 201㎡     |
|    | 한국고건축박물관 | 예산 덕산면 대동리 | 건축모형 등 163점               | 1999. 6.  | 4,791㎡   |
|    | 수덕사근역성보관 | 예산 덕산면 사천리 | 불교 관련 자료 995점             | 1999. 9.  | 456㎡     |
|    | 해송민속박물관  | 공주 반포면 온천리 | 민속자료 121점                 | 2000. 12. | 248.2㎡   |
|    | 태영박물관    | 금산 남이면 하금리 | 향토유물 110점                 | 2001. 4.  | 238.9㎡   |
|    | 홍성민속박물관  | 홍성 구항면 황곡리 | 민속자료 720점                 | 2001. 4.  | 265.1㎡   |
|    | 웅진교육박물관  | 공주 우성면 내산리 | 교육교재 등 760점               | 2001. 10. | 590㎡     |

<표 2. 충청남도 등록 기타 전시시설 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소장유물   | 개관년월      |
|---------------|-------------|--------|-----------|
| 안전기념관         | 서산 지곡 화천리   | 18점    | 1991. 12. |
| 금산인삼전시관       | 금산 금산 중도리   | 200점   |           |
| 천일민속관         | 부여 부여 교구리   | 1,380점 |           |
| 이상재선생유물관      | 서천 한산 종지리   | 200점   |           |
| 모덕사유물전시관      | 청양 옥면 송암리   | 7점     |           |
| 청양향토사료관       | 청양 청양읍 읍내리  | 152점   |           |
| 홍주문화의집        | 홍성 홍성읍 오관리  | 81점    |           |
| 김좌진장군유품전시관    | 홍성 갈산면 행산리  | 26점    |           |
| 예산보부상유품전시관    | 예산 덕산면 신평리  | 27점    |           |
| 윤봉길의사기념관      | 예산 덕산면 사향리  | 58점    |           |
| 임성중학교향토관      | 예산 오가면 역탑리  | 1,450점 | 1997. 10. |
| 남이홍장군유물관(모충관) | 당진 대호지면 도이리 | 331점   |           |

## 1) 박물관 건립 현황

‘문화산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박물관 운영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서는 박물관 운영과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문화 콘텐츠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박물관의 건립·운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의 개관 시기를 살펴보면, 총 20개소 가운데 13개소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설립된 경우는, 부여와 공주의 국립박물관, 그리고 현충사·칠백의충·독립기념관 등 전시 기능을 가진 사적지 내의 기념관이 있을 뿐이다. 온양민속박물관의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에 속할 뿐이다. 그 외의 공립(1개소), 대학(4개소)<sup>18)</sup>, 사립(10개소 전체)가 1995년 이후 건립된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정책 결정자들이 문화적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관련 연구자들이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분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박물관 건립이 정치적 배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박물관 건립을 정치적 치적으로 남기기 위하여 건립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그런 경우에, 소장 유물이나 전시계획 등 내실을 살

18 대학박물관의 경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개관시기는 다를 수 있다.

피기 전에, 우선 건물 등 외양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

그 결과는 박물관 건립 취지의 훼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한 번이라도 몇 년에 걸쳐 차분히 유물 수집을 실시한 후에, 그에 적합한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전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적당한 규모와 내부 시설을 갖춘 건물을 세웠으면, 원이 없겠다.’는 한 박물관 관계자의 말에서 웅변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련 연구자들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사전 준비가 착실하다면, 촉박한 박물관 설립계획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박물관 건립을 건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박물관 재정 여건

현재 대부분의 박물관 운영을 통한 자립 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사립 박물관 가운데 성공적인 평가를 받던 온양민속박물관의 좌초는 현 실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9개소의 박물관 가운데 흑자 운영을 하는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 재정 현황><sup>19)</sup>

| 박물관       | 내역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보령석탄박물관   | 수입 | 77,787,000  | 68,185,000  | 70,417,000   | 92,286,000   |
|           | 지출 | 119,459,000 | 95,740,000  | 159,979,000  | 110,900,000  |
| 온양민속박물관   | 수입 | 474,397,000 | 547,728,000 | 449,621,000  | -            |
|           | 지출 | 597,956,000 | 650,078,000 | 596,889,000  | -            |
| 연기향토박물관   | 수입 | 23,000,000  | 19,800,000  | 21,200,000   | 30,000,000   |
|           | 지출 | 23,000,000  | 19,800,000  | 21,200,000   | 30,000,000   |
| 수덕사근역성보관  | 수입 | -           | 10,268,449  | 20,732,371   | 16,797,476   |
|           | 지출 | -           | 19,800,000  | 약 64,800,000 | 약 64,193,975 |
| 웅진초등교육박물관 | 수입 | -           | -           | 600,000      | 3,100,000    |
|           | 지출 | -           | 7,000,000   | 16,500,000   | 13,500,000   |
| 안건기념관     | 수입 | -           | -           | -            | -            |
|           | 지출 | -           | -           | -            | -            |
| 임성중학교향토관  | 수입 | -           | -           | -            | -            |
|           | 지출 | -           | -           | -            | -            |
| 고남패총박물관   | 수입 | -           | -           | -            | 7,400,000    |
|           | 지출 | -           | -           | -            | 약 65,000,000 |
| 태안문화원     | 수입 | -           | -           | -            | -            |
|           | 지출 | -           | -           | -            | -            |

19 추정치 포함. 태안 패총박물관의 경우, 2002년 10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나, 이미 개관을 한 상태이다.

태안문화원 자료관, 임성중학교향토관, 안전기념관의 경우, 예산과 지출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다. 안전기념관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 1명이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 급여조차 서산시청에서 지급되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그런 관계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다.

각 시·군 문화원에 부설된 향토(사료)관 역시 태안군과 비슷한 형편이다. 예산을 수립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시는 물론이요, 전시가 가능한 유물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임성중학교향토관의 경우, 옛 교사 건물에 재단 이사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수장하고 있을 뿐이며, 전시는 물론 내부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의 처지는 이와 비슷하다. 해송민속박물관은 카페 한편에 민속용구를 장식품으로 진열하는 데에 불과하다. 2001년에 개관한 태영박물관, 홍성민속박물관, 웅진교육박물관의 경우, 단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소수의 유품을 소장한 채, 틈이 나는 대로 가족만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친다.

지역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목되는 사례는,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립 박물관, 그리고 공주민속극박물관이나 보령석탄박물관처럼 활성화된 사립 박물관이다.

보령박물관의 경우, 수입 내역 전액이 입장료 수입인데, 1999~2002년 사이 평균 77,169천원으로, 다른 박물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르고 있거니와, 폐광의 갯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단순히 관람료 수입만으로 박물관의 수지를 맞추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7개 박물관의 관람객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관람객 동향>

단위 : 명

| 박물관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보령석탄박물관  | 213,155 | 188,070 | 195,357 | 194,302 |
| 온양민속박물관  | 403,000 | 405,000 | 373,000 |         |
| 연기향토사료관  | 2,000   | 3,400   | 6,000   | 12,000  |
| 공주민속극박물관 | 12,000  | 16,000  | 20,000  | 25,000  |
| 수덕사근역성보관 |         | 7,276   | 23,247  | 1,800   |
| 웅진교육박물관  |         |         | 2,500   | 6,000   |
| 안전기념관    | 8,000   | 10,000  | 11,000  | 12,000  |
| 임성중학교향토관 | 750     | 680     | 720     | 420     |
| 고남폐종박물관  |         |         |         | 17,180  |
| 태안문화원    | 2,000   | 3,000   | 3,000   | 3,000   |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청남도에서 관람객이 많이 찾는 박물관은 온양민속박물관과 보령 석탄박물관이며, 입장료 수입 또한 마찬가지이다. (두 박물관의 수입은 전액 입장료 수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입장료 수입은 <표 3>을 참조할 것)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온양민속박물관의 경우, 최근 일시 문을 닫았다가 재개관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가 있다.

### 3) 박물관 인력 현황

연구 인력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박물관은 물론 모든 문화관련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공·사립 박물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현재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의 인력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 인력 현황>

| 박물관      | 관장                 | 관리직 | 연구직 | 기타       |
|----------|--------------------|-----|-----|----------|
| 보령석탄박물관  | 1<br>(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장) | 1   | 1   | 기능2, 일용1 |
| 온양민속박물관  |                    | 11  | 1   | 3        |
| 연기향토사료관  | 1                  | 1   |     | 1        |
| 공주민속극박물관 | 1                  | 2   | 5   |          |
| 수덕사근역성보관 | 1                  | 1   | 1   | 3        |
| 웅진교육박물관  | 1                  | 1   | 1   | 2        |
| 안건기념관    |                    |     |     | 1(기능직)   |
| 임성중학교향토관 |                    |     |     |          |
| 고남패총박물관  |                    |     | 1   | 1        |
| 태안문화원    | 1                  | 1   |     | 1        |

특히 연구직의 경우, 학예사 1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박물관의 전문성을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장 자치단체 또는 개인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서 대규모의 인력 충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현재 동원 가능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직하는 것이 차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 등의 전문 연구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토연구단체 등과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 4) 소장·전시 유물 현황

향토연구자, 나아가서 사설 박물관 운영자의 노고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박물관 개관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선 지적할 부분은 소장 유물의 절대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각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개 박물관 가운데 10개 박물관에서 1,000점 미만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등록된 기타 전시시설 12개소 가운데에서는 1,000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는 경우는 단 2개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표 2> 참조) 개인 소장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비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 전시는 반드시 박물관 자체의 소장 자료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동안 현지에 거주했다는 점을 십분 이용한다면, 향토연구자들의 안면관계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문중에서 소장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이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자료를 보관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스스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길은 많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허술한 기초조사와 자료 수집에서 발견되는 무원칙성은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원래의 소재지를 잃어버린 속칭 ‘번지 없는’ 유물들을 가리켜 박물관에서나 전시되는 것이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박물관 자체가 드물었던 시기에나 통용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어느 시기, 어느 곳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던 물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전시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모순에 불과할 뿐이다.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무원칙인 백화점식의 전시방법이다. 마치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동일한 기념품을 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박물관에서나 대동소이한 유물들을 관람하게 된다면, 일반인은 박물관에서 발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고증과 해제 작업이 기초작업이라 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부각하는 노력은 특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특화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또는 강화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원화 또는 상품화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핀 연후에, 주제를 가진 박물관으로 개관하고, 지속적으로 차별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주민속극박물관, 보령 석탄박물관, 고남 패총박물관 등은 최소한

출발점에서 만큼은 차별성을 갖춘 사례라 할 것이다. 전시기법 등 일부 미비점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려는 기본 방향만큼은 옳바르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는 다양한 전시기법을 이용하고, 주민들과 밀착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평생에 걸쳐서 관련 유물을 수집하여 테마박물관을 건립한 공주민속극박물관의 사례는, 박물관의 유물 수집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공주민속극박물관 소장 유물 현황>

| 분류    | 탈   | 인형  | 악기  | 농기구 | 기타    | 계     |
|-------|-----|-----|-----|-----|-------|-------|
| 총계(점) | 467 | 289 | 132 | 785 | 1,257 | 2,930 |

## 5)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정체성은 주민과 함께 했을 때,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일반의 수요가 늘어간다는 점에서도, 주민 참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보물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박물관 관계자 가운데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전 또는 이벤트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도 아니다.’ 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본인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스스로 구태를 벗한 것으로, 일반에게 접근하는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 소재 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논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우선 특별전을 포함한 연구·전시·조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운영하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충청남도 소재 박물관의 특별활동 현황>

| 박물관       | 특별전    | 자료발간     | 연구조사활동 | 교육 프로그램 | 답사 프로그램 | 기타 |
|-----------|--------|----------|--------|---------|---------|----|
| 보령석탄박물관   | -      | 팸플렛(4회)  | -      | -       | -       | -  |
| 수덕사근역성보관  | -      | 1        | -      | 1       | -       | -  |
| 연기향토박물관   | 1회(매년) | 4        | 3      | 수시      | 수시      | 3  |
| 온양민속박물관   | 23     | 11       | 2      | -       | -       | 4  |
| 태안문화원     | -      | -        | -      | -       | -       | -  |
| 고남패총박물관   | -      | -        | -      | -       | -       | -  |
| 안전기념관     | -      | 팸플렛(연1회) | -      | -       | -       | 1  |
| 웅진초등교육박물관 | 1      | 4        | -      | -       | -       | -  |
| 임성중학교향토관  | -      | -        | -      | -       | -       | -  |

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펴는 곳은 온양민속박물관이다. 지역에 소재할 뿐 전국 각지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중흉배비교특별전(韓中胸背比較特別展)을 개최하는 등 활동 영역 또한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온양민속박물관을 제외한 경우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다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사립 연기향토박물관의 활동이 눈에 띈다. 연기향토박물관의 경우에도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공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래 <표 7>과 같은 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표 8. 연기향토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 발간자료    |             |              |              |       |
|---------|-------------|--------------|--------------|-------|
|         | 제목          | 연도           | 부수           |       |
| 1       | 연기향토문화      | 1996         | 1,000        |       |
| 2       | 성당사지지표조사    | 1997         | 500          |       |
| 3       | 금남면향토지      | 1996         | 1,000        |       |
| 4       | 전의면향토지      | 1999         | 1,000        |       |
| 연구조사활동  |             |              |              |       |
|         | 주제          | 연구기간         | 참여인원(명)      |       |
| 1       | 연기군내 사지, 사찰 | 10개월         | 7            |       |
| 2       | 연기군내 산 조사   | 4개월          | 5            |       |
| 3       | 연기군내 민속     | 연 속          |              |       |
| 교육 프로그램 |             |              |              |       |
|         | 시작연도        | 시기           | 주제           | 참여인원  |
| 1       | 1996        | 수 시          | 연기군내 문화유적 소개 | 500   |
| 2       | 1997        | 10           | 학술 세미나       | 700   |
| 답사 프로그램 |             |              |              |       |
|         | 시작연도        | 시기           | 주제           | 참여인원  |
| 1       | 1996        | 수 시          | 연기군내 문화유적 답사 | 45    |
| 기타 행사   |             |              |              |       |
|         | 시작연도        | 시기           | 주제           | 참여인원  |
| 1       | 1997        | 10월          | 백제 고산제       | 700   |
| 2       | 1998        | 3월           | 덕진 산성제       | 1,000 |
| 3       | 1996        | 매년 4월 20~25일 | 우리집 가보전시회    | 3,000 |

연기향토박물관의 경우, 특정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역사·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특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기군 내에 박물관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정 기간 동안 일종의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분야를 강화하여야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의 모든 활동을 관장 혼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 박물관에서 공통적으로 처한 현실일 것이다.

한편 공주민속극박물관은 보다 전문화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공주민속극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 발간자료    |                |      |             |      |
|---------|----------------|------|-------------|------|
|         | 제목             | 연도   | 부수          |      |
| 1       | 계룡산 산신제 조사보고서  | 1997 |             |      |
| 2       | 가회리 장군제 조사보고서  | 2002 |             |      |
| 특별전     |                |      |             |      |
|         | 주제             | 연도   |             |      |
| 1       | 진주오광대 탈 전시회    | 2002 |             |      |
| 2       | 우리 나라 나무 탈 전시회 | 2002 |             |      |
| 교육 프로그램 |                |      |             |      |
|         | 시작연도           | 시기   | 주제          | 참여인원 |
| 1       |                |      | 탈 만들기       |      |
| 2       |                |      | 종이 공예품 만들기  |      |
| 3       |                |      | 인형 만들기      |      |
| 기타 행사   |                |      |             |      |
|         | 시작연도           | 시기   | 주제          | 참여인원 |
| 1       | 1996           |      | 공주 아시아 1인극제 |      |
| 2       | 1997           |      | 설위설경제       |      |
| 3       | 1999           |      | 청소년 어울마당    |      |

현 시점에서 볼 때, 공주민속극박물관은 지역 정체성 또는 공주만의 고유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속극에 많은 애정을 기울였던 설립자가 고향에 박물관을 세웠을 뿐이다. 그러나 박물관 운영이 성공한다면, 장차 공주의 특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바, 공주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정한다 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러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단순한 전시 외에, 충청남도 박물관의 활동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러한 활동을 염두에 두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박물관이 일종의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부문일 것이다.

### Ⅲ.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 1) 기본 방향

박물관은 충분히 지역문화의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관이다. 지역을 책임졌던 기관장의 기념비적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공간으로, 그리고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기념비적 건축물로서의 의의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물 수장고로

서의 기능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역사적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소실된 우려가 큰 문화유산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지역민에게 한발 더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일부 미술관에서 소장 작품을 민간에 대여하는 경영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민에게 다가간다고 하여, 박물관 운영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기초조사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인 유물의 확보, 지역 문화의 성격 규명 등의 절차를 거친 연후에, 박물관의 입지 선정, 철저한 전시계획의 수립,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문화는 반드시 선사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근·현대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자치단체의 시도가 참신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은 고고학적 유물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특징은 곧바로 그 지역의 경쟁력이다. 지방화 시대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기왕의 전시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박물관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반에게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곽 관련 박물관을 건립할 때, 성곽 시설 일부를 전시 유물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제화된 박물관 운영, 답사를 넘어선 체험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기초자료의 조사와 집대성

기초조사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수반하는 기초연구가 불가능하다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연구결과의 통합관리이다. 개발사업에 따르는 지표조사, 문화재청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의 사업, 국사편찬위원회 등 중앙기관의 조사·연구 활동 등은 모두 관련 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조사위원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단지 수집된 자료를 촬영하고 중앙으로 발송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것이다.

예산 부족 등으로 관련 유물을 매입하기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소장처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기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를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지에 정통한 향토연구자의 경우, 관련 유물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향토연구자와 외지 전문연구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또는 문중 등과의 협력관계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협력의 기반 위에서 지역 문화의 성격 규명, 그리고 박물관의 기본 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비채집식의 접근방식은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지역과 분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보충하는 작업이 곧 자료의 집대성 과정이 될 수 있다.

집대성 작업은 미래의 위탁 관리, 매입 등을 통한 상설 전시, 특별전 개최의 기초자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소위 문화컨텐츠의 한 부분을 점하여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역사문화원 또는 도사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전도에 걸친 네트워크의 형성,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은, 그 기관의 장기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 3) 박물관의 특화 방안

지역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경우, 우선 그 지역의 종합적 성격에 관심이 갈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지역사회의 문화 주제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승되는 자료의 성격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문화의 주제라면, 박물관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우선 지역문화 자체를 박물관화시킬 수는 없다. 결국 특정 아이টে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문화항목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시·연출이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자원의 소재지를 떠날 수 없는 자원의 경우, 단지 외부에서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경쟁력을 못 갖출 수도 있다.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아이템이야말로 경쟁력을 갖춘 주제가 될 것이다. 금산 인삼전시관, 보령 석탄박물관, 예산 예덕보부상유품전시관 등은 그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등등의 박물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근·현대 민속신앙과 신흥종교의 요람이었던 신도안 지역과 연계한 종교박물관
- 호서 유학의 근거지였던 회덕·연산·노성의 유교자원을 활용한 유교박물관

- 경허·만공·만해, 그리고 김일엽, 나혜석, 한성준, 이응로 등 근·현대 인물의 자취가 남은 수덕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물박물관
- 서산마애불과 보원사지 등 내포불교유적이 산재한 지역의 불교박물관
- 은산별신제와 한산모시라는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저산팔읍박물관
- 삼교천변을 따라 산재하는 내포교회의 유적을 활용하는 박물관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들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군과 향토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현 시점은 이러한 주제를 발굴하고, 관련 유품들을 확인·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단계인 듯하다. 이러한 노력은 박물관 신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원 내의 향토사료관을 포함한 기존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특화를 통한 변신의 노력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테마를 발굴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외부인의 관람이 많았을 때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특히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박물관도 머지 않아서 박물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박물관 운영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 부문에서 연계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삭막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2년 개관한 삼교호 함상공원의 사례는 성패를 떠나서 참신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주제별 전시관과 입체영상관은 물론이요, 식당·오락실·카페까지 갖춘 종합위락공간으로 개관하였고, 향후 군함테마공원, 해양테마공원, 종합해양리조트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미래박물관의 한 형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겸하는 전시시설 또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옹기 등 향토유물을 전시하는 태영박물관의 경우,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로 인하여 청중에게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함상공원처럼 지역적 전통과 무관하거나, 태영박물관처럼 단순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장식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그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적 전통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의 패총 유물을 전시하는 고남 패총박물관의 경우, 전통 한선(韓船)을 포함한 최근의 민속어구까지 포함하는 전시, 그리고 갯벌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안면도의 역사적 전통을 통시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IV. 결론에 대신하여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받고, 기초조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차선책을 모색하고, 또한 상황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마저 없다면, 작은 실천마저 불가능할 것이다. 큰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문화연구와 박물관 설립에 대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문화 연구결과의 집대성 작업
- 주요 유물에 대한 정리와 해제 작업
- 최소한의 유물 수장시설의 확보 또는 지원
- 관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 관련 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등등

향토애로 무장한 채 수 십년 동안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고 유물을 수집하여 온, 사립박물관 운영자를 포함한 대다수 향토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최소한의 지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당국자의 관심을 기대하는 바이다.